

(옆면)

(앞면)

비수도권 청년 여성의 고립 경험 분석 연구보고서

(재)공공상생연대기금 2025년 노동 연구 지원사업

비수도권 청년 여성의 고립 경험 분석
연구보고서
안예슬



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



재단법인공공상생연대기금

제 출 문

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 이사장 귀하

본 보고서를 “비수도권 청년 여성의 고립 경험 분석 연구” 최종보고서
로 제출합니다.

2025년 11월 28일

연구책임자 : 안예슬

연구기간 : 2025. 01. 01.-2025. 11. 28.

보고서 요약서

연구사업명	(재)공공상생연대기금 노동 연구 지원사업
연구과제명	비수도권 청년 여성의 사회적 고립 경험 분석
연구책임자	안예슬
요약문	<p>본 연구는 비수도권 청년 여성의 고립 경험을 심층 인터뷰로 분석하여, 고립이 개인 문제가 아니라 지역·젠더·돌봄 구조와 결합된 사회적 현상임을 밝힘.</p> <p>고립은 관계가 0명인 상태가 아닌, 애인·가족 등 단일한 관계에만 의존할 때도 심화되며, 이는 지역의 자원 부족과 결합하여 고립의 조건을 강화함</p> <p>비수도권 여성은 가족 제도·지역문화·노동 시장 구조의 제약 속에서 삶의 선택지가 좁아지고, 고립 해소를 위해 결혼·이주를 고려하나 이는 실천되기 어려움.</p> <p>해외·타지역 이동 경험이 있는 참여자들은 지향을 기반으로 새로운 관계망을 만들기도 했으나, 취약성을 매개로 관계가 연결되었을 때 실질적인 안전망이 형성됨.</p> <p>고립은 사회적 돌봄의 부재와 직결되며, 가족 외부의 관계·공공자원·지역사회 기반 돌봄이 확장될 때 전환 가능성이 높아짐.</p>
핵심어 (5개 이내)	비수도권 청년 여성 / 사회적 고립 / 돌봄 구조 / 관계망 / 지역 격차

요약문

1. 제목: 비수도권 청년 여성의 사회적 고립 경험 분석

2.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최근 청년 고립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현상으로 설명되지만, 실제 경험의 구조적 차이는 충분히 분석되지 않았다. 특히 비수도권 청년 여성은 지역의 자원 부족, 젠더 규범, 가족 기대 등 여러 제약이 중첩되며 고립 위험이 심화되는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미비하다. 본 연구는 비수도권 청년 여성의 고립을 개인 특성이나 정신건강 문제로 축소하지 않고 지역·젠더·돌봄 구조가 교차하는 사회적 조건으로 분석함으로써, 목소리의 사각지대를 드러내는 데 목적이 있다.

3. 연구의 내용 및 범위

- 11명의 비수도권 청년 여성(19~34세)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 진행
- 고립의 정의, 관계망, 일자리·이주 경험, 가족·연애 관계, 지역 자원과 제도 접근성을 중심으로 분석
- 참여자의 발화를 중심으로 고립의 양상, 발생 조건, 유지 메커니즘을 서사적으로 재구성
- 기존 정책 논의(정신건강, 취업 지원 등)의 한계와 지역별 자원 격차 검토
- 미래 상상(관계·이주·공동체)에 나타나는 지역적 제약 분석

4. 연구결과

(1) 고립은 변화하는 경험

참여자 다수는 스스로를 고립으로 규정하지 못했으나, 실제로는 외출·관계·일상의 기능 수준이 계속 변화하는 가변적 상태에 있었음. 애인·가족 등 1~2개의 관계만 유지하는 경우에도 정서적 고립은 심화됨. 특히 애인관계가 유사 가족으로 기능할 때 위험성이 증가.

(2) 돌봄 공백이 고립의 핵심 요인

가족은 가장 가까운 관계지만 실질적 지지의 원천이 아니었으며, 장녀·여성에게 돌봄·감정노동이 집중됨. 폭력·갈등·정서적 부재에도 불구하고 가족을 떠날 선택지가 부족해 관계 지속이 고립을 강화하는 구조로 이어짐.

(3) 지역 자원의 부족이 고립을 장기화

청년센터·상담 등 공공자원 접근성이 낮고, 이동 거리·정보 부족·익명성 문제로 이용이 어려움. 일자리 선택지가 간호사·공무원 등으로 제한되고, 지역 기반 직장은 여성의 전문성을 낮게 평가하거나 갈등이 잦아 고립을 확대함.

(4) 관계 단절과 ‘여성 친구’의 부재

결혼·출산으로 기존 친구와의 관계가 단절되고, 새로운 관계 형성은 지역 문화·여가 자원의 부족으로 어려움. 여성 친구와의 친밀감을 그리워하지만 현실적 기회가 부족하여 결혼이 유일한 안정 전략으로 인식됨.

(5) 새로운 가능성: 취약성을 기반으로 한 연결

일부 참여자는 면접·대화·활동 과정에서 취약함을 드러내는 관계가 새로운 안전망으로 작동할 수 있음을 경험함. 이는 기존 가족·연애 중심의 돌봄 구조를 넘어서는 ‘동료애적 돌봄’의 가능성을 보여줌. 완벽한 관계가 아니더라도, 서로의 취약성을 수용할 수 있는 만남은 고립 전환의 중요한 조건으로 나타남.

(6) 노동이 없는 미래 상상

비수도권 청년 여성의 미래 상상은 제한된 노동시장·관계망·자원 환경 속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기대치를 기반으로 형성되었으나, 이는 단순한 체념이 아니라 현재 조건 안에서 자신에게 맞는 삶을 재구성하려는 현실적 전략이었음. 직업·주거보다 정서적 안정·관계적 안전이 미래의 핵심 축으로 등장했고, 일부는 고립 경험을 계기로 대안적 공동체·새로운 관계·자신의 속도에 맞는 삶을 상상하기 시작함. 이는 제약 속에서도 미래를 다시 설계하려는 가능성의 움직임으로 해석됨.

5. 연구결과의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이 연구는 비수도권 청년 여성의 고립을 개인의 심리·정신건강 문제가 아니라 돌봄 구조와 지역 격차의 산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러한 관점을 토대로 향후 정책 설계에서는 고립을 ‘위험군 선별-지원 제공’ 모델이 아니라, 돌봄의 재배치와 관계 기반 안전망 확충이라는 구조적 접근을 제시한다. 특히, 가족 내부에 집중된 정서적·생활적 돌봄 부담을 사회적 차원으로 분산할 수 있도록, 청년센터·상담 지원·커뮤니티 등 공공 자원을 생활권 단위로 재배치하는 전략에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수도권 중심주의로 인해 지역 청년 여성의 선택지가 제한되는 현실을 고려하여, 지역을 떠나지 않아도 관계를 형성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배경을 조성한다. 더불어 취약성을 공유하는 또래 기반의 소모임, 동료애적 연대, 공동체형 주거 모델 등 고립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의 근거가 되어, 가족과 연애 관계 외부에서도 안정망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책적 실험을 제시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정책 전환 과정에서 지역 고립 패턴을 구조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목 차

1장. 서론	p.7
1.1 연구 배경	p.7
1.3 연구 방법	p.8
1.4 연구 참여자의 특징	p.9
1.5 연구의 한계	p.9
2장. 비수도권 청년 여성의 고립 경험	p.11
2.1 고립 정체성 의심	p.11
2.2 삶의 전환-해외	p.12
2.3 돌아온 사람들	p.14
2.4 고립의 원인인 가족과 유사가족	p.16
2.5 일자리, 이중적 배제	p.20
3장. 비수도권 청년 여성의 삶의 조건	p.24
3.1 세대 내 격차	p.24
3.2 가족이라는 ‘개념’의 제약	p.27
3.3 제한된 일자리	p.29
3.4 자원 이용의 한계	p.31
4장. 비수도권 청년 여성의 내일	p.34
4.1 언급된 미래	p.34
4.2 우정의 가능성	p.36
5장. 결론 및 시사점: 고립 이후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	p.39
5.1 고립을 둘러싼 조건의 입체성	p.39
5.2 능력주의와 지역 구조가 만든 세대 내 격차	p.39
5.3 미래 속에 부재한 것들	p.40
6장.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p.42
참고문헌	p.44

1장. 서론

1.1 연구 배경

비수도권 지역에서 살아가는 여성 청년의 고립은 단일한 사건이나 개인적 성향에서 비롯된 결과가 아니다. 면접 참여자들의 경험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난 것은, 고립이 하나의 상태가 아니라 지역사회 구조·가족 관계·젠더 규범·진로 선택 과정이 중첩되는 지점에서 발생하는 장기적인 경험이라는 점이다.

참여자들은 고립을 단순한 외로움이나 인간관계의 단절로 설명하지 않는다. 고립은 자신이 감당해야 할 돌봄이 지나치게 개인에게 집중된 상황, 자원이 부족한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혼자 버텨야 하는 삶의 조건, 그리고 어디에도 의지하기 어려운 관계 속에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선택하게 된 최소한의 거리두기 전략으로 이해된다.

비수도권 지역은 서울과 비교했을 때 가용한 자원의 밀도 자체가 다르다. 청년을 위한 안전망·돌봄·취업 지원·정신건강 자원 등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며, 지역사회 관계망은 더 좁고 친족·지인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외부의 도움이나 공적 서비스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는 문제를 낳는다. 이러한 조건은 청년 여성의 자신의 취약함을 드러내기가 더욱 어렵게 만들며, 결국 고립의 장기화를 초래한다.

이 연구는 비수도권 청년 여성의 고립을 개인의 부적응이나 성격 특성으로 환원하지 않고, 지역성과 젠더가 교차하며 만들어내는 구조적 피로와 조용한 저항의 형태로 바라보고자 한다. 고립을 통해 드러나는 것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사회적 압박이며, 그 압박 속에서 탈락하거나 숨겨진 삶의 감각이다. 참여자들의 서사를 따라가다 보면, 이들이 겪은 고립은 실패의 결과가 아니라 더이상 버티기 어려웠던 사회적 조건의 반영임이 분명해진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이 다층적이다.

- 첫째, 비수도권 청년 여성의 경험한 고립의 조건과 경로를 구체적으로 드러낸다.
- 둘째, 지역사회 관계망, 가족 구조, 진로 선택 과정에 내재한 젠더적 압박을 분석한다.
- 셋째, 취약함을 드러낼 수 없는 지역적 환경이 고립을 어떻게 장기화시키는지 설명한다.
- 넷째, 수도권 중심주의와 지역 청년 여성의 삶과 선택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논의한다.
- 다섯째, 인터뷰에서 나타난 정서적·관계적·경제적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청년 여성에게 필요한 사회적 돌봄과 지원의 방향을 제시한다.

이 연구는 질적 경험을 통해 고립을 개인에게 돌려보내는 시선을 경계하며, 그 대신 고립을 만들어낸 사회적 구조를 드러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1.3 연구 방법

면접 방식

본 연구는 2024년 7월 23일부터 2025년 5월 19일까지 약 1년 2개월 동안 진행된 개별 심층면접을 기반으로 한다. 면접은 참여자에게 익숙하고 안전한 공간(지역 내 청년센터 회의실 및 스터디룸)에서 이루어졌고, 전 과정이 녹음 및 전사되었다. 면접은 1회당 약 180분 내외로 진행되었으며, 대화 중 연구자는 참여자의 말하기에 따라 질문을 조정하며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진행하였다.

참여자 구성

참여자는 총 11명이며, 비수도권에서 청년기를 보냈거나 평생 비수도권의 한 지역에서 거주했다. 참여자의 연령은 20대 초반에서 30대 초반까지 다양하며, 고립을 경험한 시점 및 기간, 가족 관계, 직업 경로도 서로 다르다. 일부는 극심한 가족 갈등을 경험했고, 일부는 정신질환이나 대인관계 단절을 겪었으며, 또 일부는 지역 내 직업 선택의 제약으로 인해 장기적인 고립을 경험했다.

이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1.4 연구 참여자의 특성으로 정리했다.

자료 분석

녹취록 전체를 반복해 읽으며 의미 단위별로 여러 참여자의 이야기를 재구성하여 ‘주제-서사(발화)-분석’의 구조로 재구성했다. 하나의 참여자 이야기를 사건이나 주제 중심으로 단위로 끊어 쌓아 올리고, 그 사이에 사회구조적 분석을 삽입하는 방식으로 보고서 본문을 구성한다.

<표 1> 면접 수행 개요

항목	주요 내용
심층 면접 참여자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여성 11명
참여자 모집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고립 청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추천(snowballing)
면담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개별 심층 면접
면담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참여자 소개 기관 회의실 및 스터디룸 등 개별 공간 대여
면담 횟수 및 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1회, 180분 내외
면담자료 기록 및 녹취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면접 시 면접 내용 전체를 녹음 및 전사
면담자 및 분석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심층 면접 담당 연구진 1인
연구 참여자 보호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전화상으로 사전 설명 및 동의면접 전, 서면 동의를 포함한 고지된 동의참여자 식별 방지: 연령, 거주지, 직업 등을 범주화

1.4 연구 참여자의 특징

이 연구에는 총 11명의 청년 여성이 참여했으며, 연령은 20대 초반부터 30대 초반 까지 분포하였다. 참여자들 가운데 상당수는 자신이 태어나고 성장한 지역에 머물러 살고 있었고, 일부는 대학 진학이나 취업 등의 이유로 서울·수도권에서 생활한 경험이 있었다. 이러한 이동 경험은 지역에서의 삶을 바라보는 기준에 영향을 주었다.

참여자들의 거주 형태는 대체로 1인 가구가 많았으며, 원가족과 함께 생활하거나 타인과 공간을 공유한 경우도 있었다. 거주 형태는 고립의 강도를 결정하지는 않았고, 타인과의 동거 여부가 정서적 안정이나 도움 요청의 가능성에 직접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통적인 특징을 보였다.

고립의 기간은 몇 개월에서 수년에 이르기까지 차이가 있었고, 한 번의 고립 경험으로 끝난 경우도 있었지만 일상과 위기의 변화에 따라 고립이 반복된 참여자도 있었다. 고립에 이르게 된 배경 역시 다양했는데, 정신적 어려움, 가족 내 갈등과 폭력, 관계의 단절, 과도한 부담감 등 서로 다른 요인들이 결합되며 고립이 형성되었다. 이는 개인이 특정한 사건을 계기로 고립된 것이 아니라 삶의 조건이 누적되면서 고립으로 이어졌다는 점을 보여준다.

참여자의 이러한 특성은 고립이라는 경험이 단일한 원인으로 설명될 수 없으며, 각자의 삶의 맥락에서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음을 잘 드러낸다.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관련된 세부 내용은 <표 2>에 정리되어 있다.

1.5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비수도권 청년 여성의 고립 경험을 심층적으로 탐색하는 데 목적을 두었으나, 표본 규모가 크지 않아 지역 간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가진다. 또한, 참여자 중 1명을 제외한 전원이 대학 재학 혹은 졸업 경험이 있다는 점에서 큰 아쉬움을 갖는다. 이는 의도된 표집은 아니었으나 눈덩이 표집의 한계로서 연구자 주변 사람인의 사회적 조건과 연결된 결과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개별 지역 사회의 자원이나 역사적 배경, 공적 체계나 지원 구조에 대한 구조적 분석이 충분히 심화되지 못해, 참여자 경험과 지역의 제도적 환경을 더욱 면밀하게 연결하는 데에는 일정한 제약이 있었다.

<표 2> 면접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연번	연령 ¹⁾	출신지	거주지	수도권 거주경험	거주형태	학력	현재 직업	고립기간 (횟수) ²⁾	고립관련 경험	애인 유무
Y01	30대 초반	A지역	A지역	유	가족동거 (비혼)	대학 졸업	무직 (쉬고 있음)		해외 생활 중 고립 경험, 정신 질환	유
Y02	30대 초반	A지역	수도권	무	1인 가구	대학 졸업	서비스업 (정규직)	4년 (1)	어린시절부터 시작된 고립, 정신 질환	무
Y03	30대 초반	B지역	B지역	유	다인 가구 (쉐어하우스)	대학 졸업	프리랜서	10개월 (1)	가정폭력	무
Y04	20대 초반	A지역	A지역	무	2인 가구 (지인 동거)	대학 재학	학생	5년8개월 (1)	코로나 시기 비대면 학교 생활로 인한 고립 경험	무
Y05	20대 후반	C지역	C지역	무	1인 가구	대학 졸업	간호사 (정규직)	5개월 (1)	가족 내 안전함 경험 부재, 질환	유
Y06	30대 초반	D지역	D지역	무	1인 가구	대학 졸업	프리랜서 마케팅, 디자인	7년1개월 (5)	가정폭력, 희귀 질환	무
Y07	30대 초반	D지역	D지역	무	1인 가구	대학 졸업	무직 (쉬고 있음)	2년 (1)	원가족의 실질적 부재	유
Y08	20대 후반	F지역	D지역	무	1인 가구	고교 자퇴	무직 (진학 준비)	7년11개월 (3)	본인 및 가족 질환	유
Y09	30대 초반	C지역	수도권	유	1인 가구	대학 졸업	무직 (쉬고 있음)	7개월 (1)	직장 내 대인관계 어려움, 해외 생활 고립 경험	무
Y10	20대 후반	D지역	E지역	무	1인 가구	대학 졸업	간호사 (정규직)	1년 11개월 (2)	지역 이동으로 인한 고립	무
Y11	30대 초반	B지역	수도권	유	1인 가구	대학 졸업	교육업 종사	1년 6개월 (1)	어린 시절부터 외로움 경험	무

2장. 비수도권 청년 여성의 고립 경험

3장은 비수도권 청년 여성의 고립이 어떤 과정을 거쳐 형성되고 유지되는지를 삶의 경로별로 살펴본다. 참여자들은 스스로를 ‘고립 청년’으로 명명하기를 주저하면서도, 관계 단절과 정서적 고립을 반복해서 경험하고 있었다. 해외 이주를 모색하거나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선택, 가족과 유사가족(애인) 관계에 기대는 일, 남초적 일자리 구조 속에서 배제되는 경험은 서로 다른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결국 고립을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조건으로 엮혀 있었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요소들이 어떻게 중첩되며, 고립을 하나의 고정된 상태가 아니라 끊임없이 흔들리는 경험의 연속으로 만들어내는지를 분석한다.

2.1 고립 정체성 의심

비수도권 청년 여성들은 자신의 상태를 고립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데 어려움을 보였다. 이는 단순히 고립의 정의가 모호해서가 아니라, 현재의 정서적 상태·관계의 특성·생활 맥락을 기준으로 스스로 판단하려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었다. 여러 참여자는 고립을 은둔이나 완전한 관계 단절로만 이해하지 않음에도, 자신의 상태가 이에 해당하는지 확신하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사전 설문에서 Y08은 다음과 같이 작성했다.

Y08: 솔직히 말하면 제가 고립 상태가 맞는지 스스로 판단이 안 서지만, 은둔 상태는 아니니 고립이 맞는 것 같아요.

이 진술은 고립의 범주를 개인이 스스로 점검해야 한다는 부담이 존재함을 보여준다. 특히 여성 청년의 경우, 외부와 단절되어 있으면서도 제한적 관계(애인, 가족, 한두 명의 지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고립’이라는 명칭을 스스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된 관계는 실제로는 정서적 고립을 심화시키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Y08은 ‘애인이 있기 때문에 고립이 아닐 수 있다’는 기준을 스스로 설정했지만, 동시에 애인 외에는 소통할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Y08: 그러니까 이게 애인이 그래도 있으니까. 네. 애인이랑 지내는 동안도 포함을 해야 될지… 그런 거 같아요. 근데 사실 애인이랑 있으면서도 많이 외로움 느끼고, 그 고립 상태라고 느끼거든요. 왜냐하면 아는 지인도 없고 그러니까.

이 사례는 특정 관계의 존재가 고립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애인 관계만이 유일한 사회적 연결일 경우, 그 관계가 불안정해질 때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 위험은 매우 크며, 관계 단절 시 곧바로 완전한 고립으로 전이될 가능성 이 높다. 일부 참여자는 이러한 상황 때문에 폭력적이거나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와 같은 맥락은 관계의 폐쇄성과 의존도가 높은 ‘섬연애’의 위험성과도 맞닿아 있다.

한편 Y10은 자신의 상태를 “고립인지 아닌지 애매하다”고 응답했다.

Y10: 지금은 고립상태인지 아닌지 좀 애매한 상태인데, 상담을 받으면서 정서상태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었고 그래서 좀 더 용기내서 관계맺기에 도전할

수 있었어요.

Y10은 지역 청년센터 프로그램 참여, 지역 커뮤니티 활동, 상담 지속 등을 통해 이전보다 사회적 접촉이 늘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은 개인의 지속적인 노력에 의해 유지되는 것이었으며, 지역 내 정서적 자원과 물리적 안전망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중단될 경우 다시 고립 상태로 복귀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러한 상태를 ‘고립의 위험에 노출된 상태’로 볼 수 있으나, 완전한 고립은 아닌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례는 고립을 은둔·관계 단절 중심으로 이해하는 기준의 기준이 실제 청년의 경험을 충분히 포착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수의 청년은 간헐적으로 외출하고 제한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러한 활동은 고립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완화하지 못한다. 결과적으로 ‘나는 고립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판단으로 인해 자신의 상태를 위험으로 인지하지 못하거나, 고립 청년 지원 체계와의 연결 지점이 사라지게 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서도 이러한 경향은 확인된다. 고립·은둔 상태의 청년 중 약 58%가 자신의 상태를 위험하다고 인식한 반면, 고립 위험군의 경우 그 비율은 37.1%에 그쳤다. 즉, 사회적 관계가 부족하지만 완전한 고립으로 분류되지 않는 청년들은 제도적 접근에서 가장 멀리 위치하게 된다.

청년 여성의 고립은 고정된 상태가 아니라 가변적인 경험으로 나타났다. 특정 시기에는 소통하는 사람이 1~2명 존재하더라도, 이후 상황 변화나 정서적 소진으로 인해 다시 0명이 되기도 한다. 최근 사용되는 ‘재고립’이라는 개념에서도 확인되듯, 고립에서 벗어나기 위한 시도가 단발적으로 나타났다가 다시 고립으로 회귀하는 과정이 반복된다. 이는 개인의 의지 부족이나 실패로 해석되기보다, 지역적·사회적 자원 부족과 구조적 취약성이 결합된 결과로 보아야 한다.

청년 고립을 단일 상태로 정하는 것보다, 이러한 가변성을 중심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립 위험군이 지원 체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고립의 정의와 정책적 범주 역시 기계적 기준이 아니라 경험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2.2 삶의 전환–해외

비수도권 청년 여성의 면접 참여자들 중에는 어학연수와 같은 기회를 실제로 경험한 사람은 없었다. 그러나 대부분은 일정 시기 해외 이주를 고려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참여자들은 성장한 지역에서 계속 생활하는 경우가 많아, 삶의 전환을 위해 해외 거주를 상상해보았으나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실행에 이른 사례는 없었다. 해외에서의 삶은 ‘가능한 꿈’이 아니라 ‘구상은 했으나 실현 불가능한 선택지’로 인식되었다.

참여자들은 해외 이주를 고려할 때 언어·기술과 같은 개인 역량이 필수 요건으로 제시되는 구조적 환경에 직면했다. 부모의 지원이나 가족 배경이 언급되지는 않았으나, 실질적으로는 지원 기반이 부족한 상황에서 개인 역량만으로 해외 이주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공유되었다.

Y02는 복지·인권 측면에서 해외 거주를 긍정적으로 바라보았으나, 정보 탐색 과정에서 ‘개인의 능력’에 대한 요구가 높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주 시도를 중단한 경험을 설명했다.

Y02: 진짜 유럽 북유럽 가서 살아보고 싶었어요. (...) 근데 그런 거 검색해보거나 주변에 물어보거나 그러면은 ‘엄청 어렵다’ 이런 말을 많이 들어가지고 엄두를 못 냈던 것 같아요. 언어는 기본적으로 잘해야 되고, ‘능력이나 기술이 있어야지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듣고 그래가지고.

유사하게, Y03도 해외 거주를 상상해본 적은 있으나 언어가 결정적인 장벽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Y03: 언어가 안 돼서. 언어가 안 돼가지고. (...) 생각은 해봤는데 언어가 역시 제일 큰 장벽이라서.

이와 같은 진술은 해외 이주를 실천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이 개인 단위로 과도하게 요구되는 현실을 반영한다.

일부 참여자는 해외 거주를 단순한 이동이나 진로적 목적이 아니라 “아무도 자신을 알지 못하는 환경에서 삶을 재구성하고 싶다”는 욕구와 연결짓기도 했다. 이는 지역사회에서의 익명성 부족, 과거 노출의 부담, 관계망의 비의도적 춤춤함 등의 요인과 관련되어 있다.

Y06: 요즘은 좀 갈망하는 게, 해외에서 그냥 몇 달 살아보고 싶다 이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 나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가지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다.

이와 같은 응답은 해외 이주가 지역에서 벗어나기 위한 ‘유일한 탈출구’처럼 인식되기도 함을 보여준다. 또한 한국 사회의 경쟁적 문화·비교 중심 구조와 대비되는 환경을 기대하는 측면도 있었다.

Y06은 한국 사회의 비교 문화, 성과 중심 구조가 청년의 정서적 고립을 강화한다고 분석하며, 자신이 느끼는 답답함을 해외 문화와 대비해 설명하였다.

Y06: (한국은) 이런 비교하는 문화부터 해서. 사회적으로 일을 안 하면은 개차반을 만드는 (...) 때문에 이런 청년들이 동굴에 쳐들어갈 수밖에 없지.

해외 이주를 고려한 적이 없는 유일한 참여자인 Y07은, 이를 “자신의 상상을 확장해줄 사람이 주변에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선택지의 상상 가능성 자체가 관계망의 폭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Y07: 해외에요?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넓혀준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 점점 나이 먹으면서 그런 게 없어지고, 또 회사도 늘 작은 데 다니니까 그렇게 저를 확장시켜줄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는 최근 다양한 모임에 참여하면서 해외 거주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인식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Y07: 이제야 사람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니까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재밌고 더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모임을 좀 나가는 것 같아요.

일부 참여자는 지역 이동과 고립 경험을 겪은 뒤 해외 이주에 대한 인식을 재조정하기도 했다. Y10은 낯선 지역으로의 이동만으로도 고립이 심화되었던 경험을 설명하며, 해외 거주가 자신에게는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Y10: 대한민국 안에서도 지역이 바뀌면 적응하기가 힘든데 (...) 언어도 다른 외국에 산다면 ‘진짜 힘들겠다, 절대 안 돼.’ 외로움의 어떤 위험성을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이러한 서사는 고립 경험이 해외 이주를 가능성의 확장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위험 요인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비수도권 청년 여성에게 해외는 삶을 전환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대안적 공간으로 상상되지만, 실제로는 언어·기술·정보 접근성 등 개인 역량이 과도하게 요구된다. 이러한 역량은 개인의 성향이나 노력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족 배경과 자원 환경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다. 또한 몸과 마음의 안정성까지 개인 역량으로 치부되는 사회에서는 도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안·에너지 소모 역시 개인에게 전가된다.

결과적으로 충분한 자원이 없는 청년에게 해외 이주는 실현 가능한 선택지가 아니며, 대안이 부재한 상태에서 결혼이 삶의 전환을 위한 거의 유일한 선택지로 작동하는 경우도 있었다. 결혼을 고립 탈출 혹은 전환의 전략으로 고려하는 사례에 대한 논의는 이후 장(‘0장 미래’)에서 자세히 다룬다.

2.3 돌아온 사람들

서울에서 대학원 생활을 하던 Y01은 혼자 생활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리적·신체적 상태가 악화되면서 고향으로 돌아왔다. 그는 당시 상황을 물리적 고립과 심리적 고립으로 구분해 설명하였다.

Y01: 사실 좋아서 돌아온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냥 가족이 있고, 제가 제 생활을 지탱할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돌아온 거였는데 돌아와서 살다 보니까 (A지역이) 좋아진 거예요. (...) 일단 물리적으로 방 밖을 나가지 않았고요. 주변 사람들과 연락을 다 끊었고, 물리적으로 그랬고. 심리적으로도 많이 무너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Y01과 Y09는 모두 해외 취업 경험이 있었으며, 귀국 후 다시 지역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기존의 관계망이 해체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오랜 시간 지역 밖에서 생활한 결과, 고향에서 연결 가능한 관계의 기반이 거의 사라져 있었다.

Y01: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가 지역이 다 달라요. 사실 그래서 이어지고 있는 관계가 없어요. 거의 그리고 대학 친구들 몇몇도 다 서울에 있고 그래서 A에 왔을 때 다시 왔을 때는 이전 관계가 거의 없었어요.

Y09는 귀향 후 과거 친구들과의 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다는 점을 경험했다. 고향이라는 동일한 공간을 공유하고 있음에도, 서로의 삶의 경로와 가치가 다른 탓에 관계 재구성이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Y09: 너무 단절된 기간이 길다 보니까 그간에 왜 이 전공을 선택했는지부터 다시 말해야 되는 경우가 많았던 거죠. (...) 예전에는 고등학교를 같이 나온 친구였는데 지금은 저랑 결이 맞는 사람이 친구잖아요. (...) 우리 동창이지 친구는 아니라고 C에 다시 돌아갔을 때는 그렇게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두 참여자는 고향에서 기존 관계와 재연결하기보다, 새로운 가치와 지향을 기반으로 관계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Y01은 지역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의 활동을 계기로 지역 활동을 시작했다.

Y01: A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를 만나게 되면서 시작했던 것 같아요. (...) (축제를) 했다고 소식을 들었는데 후속 강연을 한다고 해서 후속 강연을 갔어요. 그래서 뒤풀이 자리에서 조직위 분을 만나서 같이 하고 싶다고 했어요. (...) 이 좀고, 한 다리 건너면 다 아는 동네에서 어떻게 이걸 했지? 그리고 나도 돋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Y09는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청년들을 만나며 이전의 경쟁 중심적 삶과는 다른 가치관을 접하게 되었다.

Y09: 지역에 남아서 그런 지역 사회 운동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나는 나의 성장만 바라보면서 (...) 계속 비교하는 마음이 들었는데 C에 가니까 공생, 상생, 지역사회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사는 삶도 있는데'라는 생각이 처음에 들었었고.

Y01은 A지역에서 새롭게 구축한 관계망이 서울의 관계망보다 덜 파편화되어 있다고 인식했다. 좁은 지역사회 특성으로 인해 관계가 촘촘하게 연결되며, 이는 외부 지역의 낯섦과 달리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Y01: 서울은 정말 개인적이고 파편화돼 있는 느낌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 A는 사람들끼리 좀 가깝고 덜 파편화되어 있는 느낌이 들긴 하는 것 같아요. (...) 친구의 친구가 내 친구이기도 하고 이렇게 연결이 될 것도 많은 것 같고.

다만 지역에서 오래 살아온 청년 여성과 달리, 여러 차례 이주 경험이 있는 참여자에게는 새롭게 구축한 관계가 오히려 더 편안하게 느껴지기도 했다. 이는 기존 관계의 기대·규범·감시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역으로 돌아온 청년이 마냥 환영받는 것은 아니었다. Y09는 지역 친구들 사이에서 '유턴파'로 분류되며 미묘한 거리감을 반복적으로 경험했다.

Y09: 새로 사귄 C 친구들은 저희를 '유턴파'라고 불렀는데 (...) '너도 서울 가서 안 되니까 내려온 거 아니야' 약간 이런 거여서 늘 좀 이방인 같아 있었던.

또한 지향을 중심으로 형성된 관계에서도 한계가 발생했다. 활동 공동체와의 갈등은 관계가 단순한 우정이 아니라 동일한 이데올로기를 기반으로 한 연대임을 보여주었고, 이는 결국 구조적 피로를 야기했다.

Y09: 시위에 나가는 동지를 원하는 것 같았어요. (...) '나는 우리가 친구라고 생

각했는데 사실은 동지였구나' (...) '나한테는 친구가 필요했던 것 같아' 이렇게 좀 나오게 됐던 것 같아요.

반면 Y01은 지역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그는 활동 속에서 자신의 취약성을 드러냈을 때 비난이나 회피가 아닌 지지와 기다림을 경험했고, 이는 소속감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

Y01: '제가 많이 가라앉아서, 당분간 활동을 못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만 하고 거의 잠적을 했는데, 묵묵히 기다려주고 응원해줬던 것 같아요. (...) 다시 만나게 됐을 때 되게 반겨줬거든요.

귀향한 청년 여성들은 기존 관계망과 맞지 않는 경험을 공유하며, 그 대신 가치와 지향이 맞는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연결도 '유턴파'라는 구분 속에서 완전한 소속감을 갖기는 어려웠다. 그럼에도 취약성을 공유하고 이해받는 경험이 가능할 때, 참여자들은 지역사회 내에서 지속적 관계망을 형성하며 정착할 수 있었다.

이는 지향 중심 관계는 빠른 연결을 제공하지만, 취약함을 매개로 한 관계는 지속성과 안정성을 만든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구조적 이동을 반복한 청년 여성에게 귀향은 단순한 공간적 이동이 아니라, 관계 재구성의 새로운 시작점이자 고립 완화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작동함을 보여준다.

2.4 고립의 원인인 가족과 유사가족

보건복지부의 고립·온둔 청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고립·온둔의 이유로 '폭력·괴롭힘'을 선택한 비율은 6.5%, '가족 어려움'을 선택한 비율은 12.4%였다. 그러나 가족 내 폭력 경험이 있는 경우 두 항목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다. 고립의 원인이 복합적으로 구성되는 현실을 단일 문항으로 측정하는 방식은 폭력과 가족 문제의 중첩성을 충분히 포착하기 어렵다.

면접 참여자 11명 중 두 명(Y06, Y02)은 가족 내 신체적·정서적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Y06은 성인이 된 이후까지 부모의 폭력이 지속되었으며, 사회복지사로부터 심리상담을 권유받은 뒤에야 자신이 겪은 상황을 가정폭력으로 인지하게 되었다. 그는 폭력의 지속과 부모의 평가가 자신에게 무기력과 자기비난을 내면화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Y06: 그 상담 쌤이 먼저 소개를 하는데… 그러니까 살면서 내가 가정폭력 얘기 를 해본 적이 없는데, 왜 남한테서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뭔가 내 얘기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더 많이 막 가슴에서 용어리가 풀리면서… 저는 이때 까지 계속 내가 맞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늘 맞을 짓을 한다면서 맞아 왔기 때문에. 그리고 니 같은 성격은 밖에서 아무도 안 받아준다고… 나가면 니는 거지라면서. 여기서 그나마 받아주는 거라면서.

상담사는 그의 무기력과 무능력감이 개인의 성향이 아니라, 지속된 폭력 경험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설명하였다. 이는 Y06이 자신의 상태를 처음으로 맥락화할 수 있었던 계기였다.

Y06: 이 세상에 맞을 짓이란 건 없다면서. 뭘 하든 간에 폭력을 정당화할 수가 없다… 저는 이때까지 게으름과 무기력의 원인이 나 자신의 의지 박약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처음 알려준 거예요. 니가 왜 게으르고 무기력할 수밖에 없냐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가정폭력을 당하고, 거기에서 오는 폭력이나 이런 거 때문이라고.

그는 이후에도 “맞을 걸 알면서도 움직이지 않는 자신이 잘못된 것 아니냐”고 반문하며, 폭력이 반복됨에도 회피가 어려운 이유를 상담사가 설명해준 순간을 강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Y06: 맞았으면 더 이상 안 맞기 위해서 움직이려고 하는데… 저는 계속 침대에서 움직이지 않는데 그 말이 이해가 안 간다 했는데, ‘맞았으니까 네가 더 무기력해지고 더 우울해지고 더 힘들어서 못 나가는 거라’… 그 말을 듣기 전에는 난 지금도 계속 침대에 있었어요. 저는 32살 돼서 난생 처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

또 다른 참여자인 Y02는 스토킹 피해 경험을 설명하며, 이에 대한 가족의 반응이 매우 소극적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가족이 피해 사실을 알고도 위험을 축소하고 적극적 지원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혼란을 느꼈고, 이러한 반응이 일반적인지 질문하였다.

Y02: 보통 이런 얘기(스토킹 피해)를 하면 어떤 조치를 취해준다거나 다른 집은 그럴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 근데 뭔가 저희 부모님은 그런 거에 대해서 적극적인 그런 게 없었어요… ‘그렇게 위험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게 강했고.

인터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Y02는 자신의 피해와 가족의 태도가 연결되는 지점을 스스로 이해하게 되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집안에서 폭력을 경험했던 사실을 언급하며, 가족 구성원 모두가 폭력에 둔감해져 있었다고 말했다.

Y02: 폭력에 둔감한 것 같기도 해요, 저희 가족이. (...) 저희 부모님은 저를 많이 때리셨어요. 아빠는 가부장적이고 무서운 분이었고, 엄마는 기분이 태도가 되면 때리는 스타일이었고. 언어 폭력을 좀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Y06과 Y02의 서사에는 또 다른 공통점이 있다. 두 사람 모두 장녀이며 첫째였다. 폭력은 가족 구성원 전체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았다. 첫째에게 집중되었고, 둘째나 남동생은 상대적으로 보호받았다.

Y06: 저는 차별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내가 첫째라서… 동생은 폭력이 거의 없거든요. (...) 맞더라도 내가 더 맞지.

Y02: 동생이랑 싸웠는데 제가 그때 안경 쓰고 있었거든요. 안경 막 날아가고… 뺨을 한 20대 30대 막 이렇게 때리고… 둘째 동생도 좀 맞긴 했는데 저 정도는 아니었고요. (...) 셋째는 남동생인데 남동생은 진짜 유리알처럼 대해주셨고.

장녀에게 집중되는 폭력은 단순한 체벌이 아니라 ‘본보기’의 성격을 띠었다. 동생들

은 첫째가 겪는 폭력을 보며 이를 회피하는 방식을 학습했고, 폭력의 표적이 되는 대상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었다. 이는 가족 내 권력관계, 젠더, 출생순위가 결합된 구조적 폭력의 특성을 드러낸다.

이들의 경험은 고립이 단순한 생활 단절이나 사회적 회피의 문제가 아니라, 오랜 기간 축적된 가족 내 폭력 경험과 결합하여 구성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폭력은 신체적 상처뿐 아니라 자기비난, 무기력, 외부 도움 요청의 회피로 이어지며, 이는 고립을 심화시키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가족밖의 관계망과 공적 자원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가족 폭력은 장기 고립으로의 이행 가능성을 더욱 높인다.

비수도권 청년 여성의 면접 사례에서는 가족이 개인의 삶에서 제도적 틀 이상의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원가족이 기능적으로 안정적인 경우에도 구성원의 말과 평가가 청년 여성의 일상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으며, 원가족이 갈등적 혹은 해체 경험을 가진 경우에는 장기간 외로움을 기본적인 삶의 조건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때 남자친구는 원가족이 충족하지 못하는 정서적·사회적 공백을 대체하는 존재로 기능했으며, 이러한 관계는 일종의 유사가족으로 작동했다.

남자친구가 안전망으로 간주되는 경향은 수도권 청년 여성 연구에서도 확인되지만, 모든 경우에 긍정적 자원으로 작동하는 것은 아니었다. 일부 사례에서는 남자친구가 폭력이나 정서적 통제를 행사하며 고립을 심화시키는 위험 요소가 되기도 했다. 한 사람에게만 정서적·사회적 의존이 집중될 때 관계는 섬처럼 폐쇄된 구조가 되고, 관계가 불안정해질 경우 당사자는 곧바로 고립 상태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면접 참여자 11명 중 4명은 남자친구가 있다고 응답했고, 대부분은 남자친구를 자신의 유일한 안전망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친밀감 자체의 영향도 있으나, 실제로는 다른 사회적 자원이나 인적 관계가 부재한 상태에서 남자친구가 외부 자원의 대체물로 기능하기 때문이었다. 예를 들어, Y08은 자신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람을 묻는 질문에 남자친구 외에는 떠오르는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안: 남자친구 말고 도움이 되는 사람이 아예 없어요?

Y08: 그런 것 같아요. 저한테 뭔가 마음이 편하고 진짜 도움이 되는 것 같다면 생각이 드는 사람이 남자친구 말고 없는 것 같아요.

Y08은 남자친구가 사는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기고 진로 또한 남자친구와 유사한 경로로 설정하려 했다. 그는 원가족으로부터 정서적 돌봄을 충분히 받지 못했고 어머니와 동생 역시 돌봄이 필요한 상태였기 때문에, 남자친구의 지원 제안은 실질적 자원으로 작동했다. 이 과정에서 가족에 대한 책임감과 지역 이주에 대한 부담감을 느꼈으나, 남자친구의 설득과 지원 약속이 그의 결정을 이끌었다.

Y08: 어머니도 아프시고 동생도 상태가 저처럼 좋지 않으니까 이게 맞나 싶었어요… 이게 해도 되는 건지 그런 의문이 들었는데 남자친구가 많이 설득을 했어요. (...) 나로 더 혼자 케어해서 나아져서 그 가족들을 챙기는 게 더 낫지 않느냐 그런… 그리고 남자친구랑 같이 진로를 정해서 남자친구가 도와주겠다고도 했고… 얼떨결에 갑자기 남자친구가 집을 보재요. D(지역)에 그래서 내려갔는데

집을 보다가 얼떨결에 계약을 해버린 거예요.

남자친구의 역할은 단순한 정서적 지지가 아니라 실질적인 돌봄 역할까지 포함했다. 돌봄을 경험하지 못한 청년 여성에게 이러한 제안은 삶의 새로운 가능성 to 여는 요소가 되었다. Y08은 남자친구와 결혼을 고려하고 있었으며, 이는 다른 참여자들의 발화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비슷한 사례로 Y05는 형제 자매가 많고 가족 구성원이 자주 도움을 요청하는 환경에서 성장했으며, 성인이 된 이후에도 가족 돌봄의 책임이 고스란히 자신에게 집중되는 구조였다. 그는 부모와 동생들의 요구에 대응하면서 종종 버거움을 느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남자친구는 그에게 실질적으로 돌봄을 제공하는 유일한 사람으로 기능했다.

Y05: 솔직히 그러다 보면 좀 버겁긴 하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엄마 아빠 아프니까… C(지역)에 저밖에 없으니까 제가 운전해서 다 챙기고… 동생들이 돈 없다고 하면 돈 빌려주고… 투잡하고 바쁜데 저도 정신없긴 하죠.

Y05의 남자친구는 Y05뿐 아니라 그의 동생들의 안부도 챙기는 등 돌봄의 일부를 분담했다.

Y05: 저는 신경을 못 쓰고 있는데 남자친구가 먼저 와서 요즘 그 동생은 어떻대? 먼저 물어봐주고… 그게 많이 감동이 됐던 것 같아요.

원가족으로부터 돌봄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가족 돌봄을 수행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청년 여성에게 남자친구의 역할은 생활 안정감을 제공하는 중요한 요소였다. 이 관계는 고립을 완화하는 실질적 자원으로 기능했지만, 동시에 위험 요인을 내포하고 있었다. 유사가족으로 기능하는 남자친구가 유일한 연결망일 때, 관계의 균열은 당사자가 사회적 연결을 모두 상실하는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위험은 Y08의 사례에서 더 분명히 드러난다. 남자친구는 불안을 표출하는 과정에서 Y08의 트라우마를 자극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였고, 이는 정서적 위협으로 작용했다.

Y08: 억누르는 모습 보여주면서 자기한테 왜 그러냐, 내가 죽어야 속이 편할 것 같네요… 카톡으로 죽고 싶다는 말 때문에… 이 사람까지 내가 보내버리면 나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 싶더라고요.

Y08은 과거 연인의 자살 경험으로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고, 남자친구의 발화는 그 경험과 중첩되며 강한 두려움을 유발했다.

유사가족이 고립을 완화하는 자원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개인에게 정서적·사회적·생활적 의존을 과도하게 집중하는 구조는 고립을 강화하거나 새로운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 비수도권 청년 여성들의 서사는 가족 기반 돌봄 구조의 부재 속에서 남자친구가 유일한 안전망이 되는 경향, 그리고 그 관계가 가진 잠재적 위험을 동시에 드러낸다.

2.5 일자리, 이중적 배제

고립 상태에서 벗어나 서비스직에서 일한 지 3개월이 지난 Y03은 여전히 자신이 일을 지속하고 있다는 사실이 낯설다고 말했다. 그는 대학 졸업 후 처음 경험한 일자리에서 극심한 폭언을 겪었고, 과도한 노동 요구 속에서도 적은 임금을 받고 퇴사했다. 당시 경험은 기존에 느끼던 고립감을 더욱 강화했고, 타인에 대한 신뢰도 크게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Y03: 서비스직을 하면서 나름 일하는 법도 배우고. 3개월 넘게 회사 다닌 게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그전에도 직장을 한 번 가지긴 했었어요. 근데 거기는 너무 폭언이 심했어 가지고… 저는 제 전공을 살려서 들어갔기 때문에 되게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고… 근데도 일도 힘들지만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서 폭언이 심했어 가지고 결국 나왔거든요. 월급을 받았는데 ‘이것밖에 안 준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만뒀어요.

Y03은 당시 경험을 업계의 특성으로 인식했다. 그가 일했던 분야는 구조적으로 보수적이며 군대식 문화가 강했고, 여성 노동자가 거의 없었다.

Y03: 그쪽 업계 자체가 보수적이라서… 제가 들어갔던 첫 직장은 극단적인 예긴 한데 군대 문화, 안 좋은 거 다 가진. 여자가 혼자기도 했지만.

한편 Y09는 지역에서 청년활동을 하다가 수도권으로 이주해 영화업계에서 일하고 있으며, 마지막 진술에서 업계 내 성차별과 여성 스태프 고립 문제를 강조했다. 그는 남성 중심의 작업 문화와 비공식적 네트워킹이 여성 스태프를 구조적으로 배제한다고 설명했다.

Y09: 영화 업계에 여성 스텝으로 있는 게 얼마나 마초 문화가 심리적으로 위축시키고 고립시키는지… 결국에 통하는 방법이라고는 ‘오빠, 맥주 한 잔 해요’ 이런 식으로 풀고… 그 방식에 적응하지 못하면 일을 계속하기 힘들다는 게 괴로웠어요.

서로 다른 산업에 위치했던 Y03과 Y09는 공통적으로 남초 환경에서 여성 노동자로서 고립을 경험했다. Y03은 군대식 조직문화와 폭언을 정상으로 여기는 환경 속에서 고립되었고, Y09는 영화 산업의 남성 연대 구조 속에서 반복적 배제와 심리적 소진을 겪었다.

Y09: 남자 스태프들은 형님 문화가 있고… 여자 스텝들은 자르고, 중요 업무에서 배제하고 이런 거 너무 쉽고… 여자가 올라가는 경우에 명예 남성이 많고… 남성 커뮤니티의 일원이 되고 싶은 소망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정확히는 남성 연대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들의 경험을 단순히 “소수자라서 고립되었다”고 설명하기보다, 남초 집단 내 위계·성차별·비공식 네트워크가 결합해 고립을 구조적으로 생산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남성 간 연대가 자원 배분과 정보 접근을 독점하며, 여성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전략—예를 들어 ‘친구되기’ 전략—을 취하더라도 쉽게

포함되지 못한다. 그 결과 여성 노동자는 Y03과 Y09처럼 일정 시점에서 조직 밖으로 밀려나거나, 독립적으로 경로를 다시 설정해야만 한다.

Y03은 지역 청년네트워크를 통해 두 번째 일자리를 소개받았고, 이전과 달리 인간적인 직장 문화를 경험하며 신뢰를 회복할 수 있었다.

Y03: 그때는 지역 청년네트워크의 도움을 받았어요. 거기에서 알게 된 사람이 ‘여기에 알바 자리 있는데 생각 있느냐’ 그래서 들어간 거거든요… 회사가 폭언이 디풀트가 아닌 걸 처음 느꼈어요.

그러나 지역의 일자리 구조는 여전히 불안정했다. 그는 A지역에 남고 싶지만 안정된 노동환경을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Y03: 법적인 거 딱딱 지켜주기만 해도 괜찮아요. 근데 법적인 거 자체를 안 지키는 곳이 너무 많아.

반면 Y09는 지역 청년네트워크에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배제를 경험했다. 그는 남성 중심의 연대가 조직 내 영향력을 형성하는 방식을 직접 목격했으며, 이를 통해 구조적 차별의 작동 방식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Y09: 네트워크 안에서 의견이 갈려도 남자애들은 같이 테니스 모임 가고… 고급 정보들은 그런 데서 결정되고… 결국엔 그 실무는 여자들이 다 처리하고… 저도 ‘저 좀 키워주세요’라고 했는데 전혀 돌아오지 않았죠.

이후 그는 수도권의 여성 감독 네트워크에서 비로소 심리적 지지와 전문적 연대를 경험했다.

Y09: 여자가 성공하려면 주변에 좋은 여자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심리적으로든 커리어적으로든… 그렇지 않으면 여자들은 소수라서 계속 자책 루트로 빠지더라고요.

비수도권 청년 여성의 노동 경험은 업계 특수성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성별 권력 구조와 지역 구조가 결합된 조건 속에서 형성된다. 여성 노동자는 남성 중심 문화에서 반복적으로 배제되고, 이는 고립을 강화한다. 또한 여성 네트워크가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비수도권 여성은 성별 기반의 배제와 지역 기반의 배제가 중첩되는 구조 속에 위치하게 된다. 이러한 이중적 배제 환경은 고립이 단순히 개인의 성향이나 적응 문제로 설명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의 인터뷰 참여자인 Y08과 Y11 역시 업무 중 부상을 경험하고도 산재 신청을 하지 않았다. 이들의 결정은 단순한 정보 부족의 결과가 아니라, 조직 내 암묵적 압박, 불안정 고용으로 인한 불이익 우려, 산재가 ‘회사에 피해를 준다’는 잘못된 정보가 현장에서 반복 유통되는 구조 속에서 형성된 선택이었다. 다시 말해, 개인의 무지나 소극성이 아니라 구조적 제약이 산재 접근을 가로막고 있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산재 신청과 인정 과정에서 지역별 편차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2023년 자료 기준 서울의 산재 인정률은 74%인 반면 부산은 54% 수준에 그쳤으며, 뇌심혈관 질병의 경우 서울남부 판정위원회 인정률이 50.7%, 광주는 21%에

불과했다. 같은 제도 아래에서도 지역에 따라 접근성·심사 기준·사업장 특성이 크게 달라진다는 점을 보여주는 지표다. 이러한 편차는 비수도권 청년 여성의 산재 접근성을 더욱 취약하게 만드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Y11은 여러 일자리를 전전하다가 서울에서 어렵게 취업했고, 불안정한 경력 상황 속에서 일자리를 유지하려는 필요성이 커졌다. 그는 식사조차 챙기지 못하는 과로 환경에서 회사 계단을 내려가다 발을 헛디뎌 다쳤으나 산재를 신청하지 않았다. 이유에 대해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는 회사의 입장을 자신의 언어로 재현했다.

YY11: 산재 처리를 할 걸 그랬어요.

안: 산재 안 했어요?

Y11: 안 했어요.

안: 왜?

Y11: 회사 눈치 보여서. 산재 처리하면 회사한테 타격이 뭐, 손해되는 게 있대요… 나라에서 엄하게 보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되기까지 회사는 뭐 했냐’ 약간 이렇게 책임을 묻나 봐요… 그런 거 없으면 저도 하겠는데.

안: 그런 정보를 어떻게 알았어요?

Y11: 어디서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 회사를 그래도 계속 다녔어야 했으니까, 회사를 계속 다니려면 회사가 싫어하는 행동을 하면 눈 밖에 나기밖에 더 하겠어요.

Y11은 산재 신청이 회사에 큰 부담을 준다고 믿고 있었으며, 이러한 인식은 비공식적으로 전달된 ‘회사 불이익’에 관한 이야기들이 오랜 시간 누적되며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산재 신청이 사업장에 즉각적 제재를 가하는 구조는 아니다. 보험료율 변동 가능성은 있으나 이는 업종 평균과 연동되며, 단일 사건이 사업장의 존폐를 위협하는 구조도 아니다. 산재는 사업장의 책임과 비용으로 감당되어야 하는 사안이며, 그 부담을 노동자가 대신 감수할 필요는 없다.

Y08의 사례에서는 산재 신청 의사가 없음에도 팀장이 ‘산재를 하게 된다’고 오해한 상황에서 조직 내 압박이 작동했다. 그는 산재를 신청할 생각이 없었음을 밝혔으나, 조직 분위기는 이미 그를 향해 미묘한 압박을 가하고 있었다.

Y08: 팀장한테 그래서 산재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왔는데… 제가 할 생각 없다고 말했음. 그때 뭐 대외적으로는 ‘우리 산재 안 해주는 회사 아니다’ 막 이러면서 (직원을) 다 부른 상황에서 그렇게 말하는데, 솔직히 알잖아요. 그 쎄한 느낌.

안: 약간 하지 말라는 무언의 압박같은 게 있었어요?

Y08: 네 그런 거. 약간 그런 걸 느꼈어요.

압박은 직접적으로 표현되지 않았고, 모두가 있는 공간에서의 발언과 반어적 표현으로 전달되었다. 불안정한 고용 위치에 있는 노동자에게 이러한 방식의 압박은 직접적인 지시보다 더 효과적으로 작동한다.

Y08과 Y11 모두 산재보험이라는 제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실제 신청을 고려한 적은 거의 없었다. 다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나을 것이라는 기대가 작동했고, 청년기 특유의 회복 가능성에 대한 믿음도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이들이 산재를 신청하지 않은 핵심 이유는 정보 부족이 아니라, 조직 내에서 산재를 신청할 수 없는 환경적·심리적 조건이었다. 산재는 ‘신청서 제출’로 해결되지 않는다.

회사와 마주해야 하고, 사고 경위를 설명해야 하며, 직장 내 암묵적 규범을 거슬러야 한다. 불안정한 일자리, 계약직 비율의 증가, 여성 노동자의 취약한 위치 등은 산재 신청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Y08과 Y11의 사례는 산재 신청 여부가 개인의 권리 인식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다. 조직 내부의 공기를 고려해야 하고, 관리자의 평가와 재계약 가능성을 계산해야 한다. 이 환경 속에서 ‘산재를 신청하지 않는 것’은 생존 전략이다. 그 결과 산재라는 권리는 조용히 사라지고, 무단으로 누락된다.

참여자들은 지역 청년정책이나 마음건강사업에는 비교적 익숙했고, 정보 접근성도 높았다. 이러한 제도들은 신청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조직 내부의 압박을 감수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반면 산재 제도는 청년 여성에게는 접근 가능한 제도가 아니었다.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더라도, 산업재해는 사실상 ‘신청할 수 없는 권리’가 되었다.

직업적 불안정은 기본적 권리조차 행사하기 어렵게 만들고, 청년 여성의 일자리는 대부분 고용 형태가 불안정하거나 단기 계약 중심이어서 산재 신청 시 불이익 가능성이 크다고 인식된다. 또한 프리랜서 형태의 노동이 많아 산재 신청 자체가 구조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도 존재한다. 결국 산재가 발생해도 신청을 하지 못하는 구조는 열악한 일자리 환경과 결합해 청년 여성의 고립과 경제적 취약성을 심화시킨다.

3. 비수도권 청년 여성의 삶의 조건

비수도권 청년 여성의 고립은 개별적인 심리 문제나 특정 사건의 결과로만 설명되기 어렵다. 이 장에서는 이들이 살아가는 조건을 중심으로, 세대 내 격차, 가족이라는 개념의 제약, 제한된 일자리, 자원 이용의 한계를 순차적으로 살펴본다. 청년 내부의 계층·지역 격차가 어떻게 고립의 양상을 갈라놓는지, 가족과 연인이 어떤 방식으로 안전망이자 제약으로 작동하는지, 비수도권의 일자리 구조와 정신건강·청년 정책 자원 분포가 어떤 삶의 선택지를 남겨두는지를 면접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3.1 세대 내 격차

청년 세대를 둘러싼 담론은 오랜 시간 동안 하나의 단일 집단처럼 다뤄져 왔다. ‘청년’이라는 이름 아래 서로 다른 배경·계급·지역에 속한 사람들이 모두 동일한 경험을 하는 것처럼 설명되었고, 그 결과 청년 내부의 격차는 충분히 드러나지 못했다. 이러한 경향은 최근 고립 청년을 다루는 논의에서도 반복된다. 고립의 범주가 은둔 여부에서 심리정서적 어려움, 외로움까지 확장되면서, 서로 다른 조건을 가진 청년들이 하나의 집단으로 묶이기 시작했다.

이 같은 흐름을 비판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고립이라는 경험이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지만, 고립이 발생하는 조건과 유지되는 방식은 모두에게 동일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지점을 보여주는 논의로서 먼저 기존 연구의 문제 제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승윤은 『보이지 않는 노동자들』에서 계급이 지워진 청년 담론을 비판하며, “이러한 현상은 특정 세대를 표상하는 정체성 정치가 얼마나 쉽게 계급 정치를 지울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청년’이라는 단일한 범주로 묶인 집단 내에 계급에 따라 상이한 이해관계가 존재하는데도, 이러한 차이는 ‘세대 갈등’이라는 프레임 속에서 회색되었다”고 말한다. 청년을 하나의 집단으로 다루는 프레임은 내부 차이를 가리는 동시에, 서로 다른 조건에서 살아가는 청년들의 경험을 동등하게 배치해버린다.

이 문제는 고립 청년 담론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고립의 정의가 확장되면서 고학력·중산층 청년도 고립을 겪을 수 있다는 설명이 가능해졌다. “고립은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는 일”이라는 주장도 이러한 설정 속에서 나온다. 그러나 참여자들의 서사와 인터뷰 내용을 기반으로 보면, 고립이 모두에게 동일하게 작용한다고 보기 어렵다.

여기서 중요한 논점은 고립이라는 현상이 단순히 개인적 성향이나 일시적 어려움으로 설명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고립은 능력주의, 수도권 중심주의, 미소지니가 심화되는 사회에서 청년 내부의 격차를 더욱 크게 만드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즉, 고립은 사회적 균열을 모두가 동일하게 경험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누구나 밀려날 수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가능한 설명이다.

경제적 자원의 수준은 고립의 양상을 분명하게 가른다.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자원이 있는 청년에게 고립 기간은 상대적으로 ‘멈춰 있는 시간’일 수 있다. 반면 자원이 충분하지 않은 청년은 같은 기간 동안 부채를 쌓아야 하며, 고립의 경험은 곧 경제적 위기로 이어진다.

인적 자원 역시 큰 차이를 만든다. 고립 상태를 지속적으로 살피고 조력할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존재한다면 회복의 기회는 훨씬 가까워진다. 반면 대화할 상대가 전

혀 없거나, 고립을 이해해줄 사람을 찾기 어려운 청년의 경우 고립은 더 깊은 방향으로 이어진다. 한 참여자는 주변과 단절되어 온라인에서 자신과 비슷한 사람을 찾았으나 “그곳에서 서로의 불안정함만 강화되는 경험이었다”고 말했다.

가족 내 자원의 배분 또한 성별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작동했다. 여러 참여자들은 여성 청년이 오히려 가족의 정서적·물적 자원을 ‘받는’ 위치가 아니라 ‘보조하는’ 위치에 놓여 있다고 설명했다. 집안일이나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는 역할을 여성에게 기대하는 가족 구조에서는 여성 청년이 자신의 자원과 시간을 스스로에게 사용할 수 있는 여지는 줄어든다.

비수도권에 거주한다는 조건은 이러한 격차를 한층 더 벌린다. 최근 청년센터와 다양한 정책이 확대되고 있지만, 비수도권의 경우 지역 규모에 비해 청년공간이 턱없이 부족하다. 같은 지역 안에서도 청년센터를 방문하기 위해 왕복 3~4시간이 소요되는 사례가 많고, 차량이 없는 청년은 접근성에서 더 큰 제약을 받는다. 연구자 본인의 경우 서울에 거주하며 도보·대중교통으로 접근 가능한 청년공간 두 곳을 이용할 수 있지만, 이는 비수도권 청년에게 보편적 조건이 아니다. 결국 공적 자원과의 물리적·심리적 거리는 고립의 경험을 갈라놓는 중요한 변수로 드러난다.

고립의 개념을 확장하는 것은 예방과 지원의 범위를 넓힌다는 점에서 필요하지만, 이러한 확장이 고립 청년 내부의 격차를 지워서는 안 된다. 같은 고립 경험이라도 경제적 자원, 관계망의 폭, 지역적 환경, 성별 규범은 서로 다른 결과를 만든다.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고립은 단일한 현상처럼 설명되고, 결국 고립이 구성되는 사회적 조건을 충분히 파악하기 어렵다.

정책적 맥락에서도 고립 청년의 표상이 하나의 모습으로 고정되는 경향이 있다. 최근 “움직이기 어렵고, 무기력하며, 아픈 청년”이 사회적으로 승인되는 시점이 되었지만, 정책적 대응은 여전히 “정상적인 청년”을 전제로 하는 방식으로 작동할 때가 많다. 반면 참여자들의 이야기는 고립 청년 내부의 격차와 그 격차를 만들어내는 사회적 조건을 드러낸다. 이는 제도가 어떤 방식으로 당사자에게 다가와야 하는지를 묻는 과정이며, 동시에 한국 사회의 취약성을 직면하게 만드는 질문이기도 하다.

이승윤은 19~34세 청년의 노동시장 경험을 12년간 추적하며 청년 내부의 격차가 시간이 지날수록 구조적으로 고착된다고 분석한다. 그의 연구에서 “3명 중 1명은 12년 동안 지속적으로 불안정한 위치에 머물렀고, 4명 중 1명은 같은 기간 안정적 삶을 유지했다”는 결과는, 같은 청년 범주 안에서도 상이한 생애 경로가 존재함을 보여준다. 이러한 불안정성은 청년기의 사회적 고립감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계층화가 누적될수록 구조적 차이는 더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의 청년 세대가 이러한 조건 속에서 어떻게 나이 들어갈지 상상해보면, 지금 우리가 고립을 어떻게 이해하고 다루느냐는 문제는 더욱 중요해진다. 분배적 불안정이 심화되고, 생존을 위해 경쟁과 효율이 우선되는 환경에서 자라온 세대가 성인기·중년기로 이동할 때, 고립은 지금보다 훨씬 넓은 영역에서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현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세대 내 격차는 수도권/비수도권이라는 공간적 구도만으로 설명되지 않으며, 동일한 지역에서 성장한 여성들 사이에서도 경험과 기회 구조의 차이에 따라 뚜렷하게 나타난다. 경계의 한편에는 성장한 지역에서 평생을 살거나 비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만 이동한 여성들이 있었고, 다른 한편에는 수도권보다 정확히는 서울에서 학업이나 일 경험을 쌓은 것이 중요한 분기점이 된 여성들이 있었다.

안: C에서 학창시절 같이 보낸 친구들이 다 서울로 오지는 못했을 거 아니에요?

Y09: 맞아요.

안: C에 남아있는 친구들은 자기 선택이기보다는 어쩔 수 없었던 경우들이 많나요?

Y09: 그렇기도 하고… 제가 대학교를 입학할 때까지만 해도 부모님들이 그 사대문 안에 들어가는 학교 아니면은 잘 안 보내. 그리고 서울 말고 다른 지방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남자애들은 부산대 뭐 이런 데도 가거든요. 여자는 잘 안 보내.

안: 그러면은 삶의 반경을 넓힐 기회가 아예 사라지는 거잖아요.

Y09: 저는 교환학생이나 대외활동을 엄청 열심히 했고, 친구한테도 ‘C대 교환학생 잘 돼 있더라. 한번 준비해서 가 봐’라고 이야기한 적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좋으면 네가 가’라고 하더라고요. 마음이 아프지 않으면 충고가 아니라 는 말이 있잖아요. 저는 그 이후로 그 이야기는 더 이상 하지 않았어요.

Y09의 사례에서처럼, 같은 지역에서 성장했다고 하더라도 청년 여성 내부에는 분명 한 간극이 존재했다. 서울에서 대학을 나오고 자기개발 기회를 활용한 여성들과 지역에 남아야 했던 여성들은 현재의 거주지와 무관하게 서로 다른 조건 위에 서 있었다. 같은 고등학교, 비슷한 경제 배경을 지녔다 하더라도 ‘삶의 반경을 넓힐 수 있었던가’라는 질문 앞에서 차이는 명확하게 발생했다.

지역에서 살아온 여성들의 삶에는 전통적 가족, 촘촘한 친족·동창 공동체, 안정된 직장을 중시하는 문화가 현재적 조건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이들은 원가족을 벗어나고 싶어 하면서도, 동시에 ‘이상적인 가족상’에 대한 기대 역시 놓지 않았다. 참여자들이 묘사한 미래의 모습 대부분이 이성애적 관계와 가족 구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반면, 서울에서 학업이나 일을 경험한 여성들에게는 자신의 지향과 커리어가 미래를 상상하는 데 가장 중요한 기준이었다. Y09는 영화 업계에서 경험한 부정적 사건이 고립의 핵심 계기였다고 말하며, 현재는 ‘정서적 안정’과 ‘여성들 간의 커리어 네트워크’를 최우선으로 둔다고 했다. 01 역시 문화예술 분야의 과노동 이후 심리적 어려움이 고립으로 드러났고, 미래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대안적 가족 모델’과 ‘자신이 원하는 관계의 형태’를 고민했다.

이들 사이의 경계는 고립의 양상 자체에도 변수를 만들고 있었다. 지역 기반 여성들의 고립은 이별, 실업, 질병과 같은 개인적 사건이 계기가 되는 반면, 서울 경험에 있는 여성들의 고립은 ‘희망하던 세계의 현실적 벽’에 부딪히며 발생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지점은, 이 두 집단의 연대가 쉽지 않다는 사실이었다. Y09가 고향 친구에게서 느꼈던 위계처럼, 서로의 세계가 너무 다르게 구성되어 있어 이해의 교집합을 찾기 어렵다는 느낌을 자주 공유했다. 이 경계는 결국 능력주의라는 사선 위에 놓여 있다. 능력 여부가 개인의 성향이나 선택이 아니라 구조적 조건—‘딸은 서울에 보내지 않는다’는 부모의 결정, 여성에게 닫힌 지역의 기회 구조—에서 비롯되었음에도, 결과는 개인의 무능이나 성취로 해석되기 쉬운 구조다. 그 과정에서 젠더적 조건은 흐릿해지고, 여성 내부의 위계만 남는다.

이소진의 『증발하고 싶은 여자들』은 이러한 현상을 ‘한국의 페미니즘이 연애·결혼의 거부를 동반한 능력주의적 지향을 제시한다는 지적은 의미심장하다… 청년여성의 자살률 증가라는 한국만의 특수성이 나타나게 된 원인으로 자리 잡는다.’라고 설명한다.

과거 여성들이 가정에서 존재론적 의미를 확보했다면, 청년 여성에게 ‘성공’은 거의

전적으로 노동 영역에서만 정의된다. 삶의 의미를 관계에서 찾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한국 사회에서 제도적으로 인정되는 유일한 관계는 이성애적 관계이기에, 관계적 선택지는 단 하나이고, 나머지는 노동에서의 성공으로 환원된다.

비수도권 청년 여성들은 이 능력주의의 경쟁에서 일찍이 배제되기 쉽다. 서울 진입이 가로막히거나 지역의 기회가 부족해 능력주의적 지향을 실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들은 전통적 가족구조 속에서 ‘삶의 통제권’을 제한적으로 가지고 있으며, 남자친구·결혼 같은 경로가 유일한 변화의 선택지로 제시된다. 반면, 서울에서 경험을 쌓은 여성들은 끊임없이 노력하지만 서울에서 안정된 기반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고, 지역으로 돌아왔을 때는 공감할 동료가 부재하다.

‘2024 수도권 청년의 삶’에 따르면 서울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청년 여성 비율이 더 높은 지역이다(15~39세 성비 94.9대 100). 이는 청년 여성들이 노동을 통한 자기 입증, 그리고 기회를 향해 서울로 몰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서울은 더 과밀해지고, 지역은 물적·인적 자원 모두를 잃는다. 이는 결국 지역 내 여성 연대의 부재를 더욱 심화시킨다.

3.2 가족이라는 ‘개념’의 제약

비수도권 여성 청년에게 가족은 중요한 의미를 갖지만, 이는 기대나 안정의 원천으로서가 아니라 가족 밖으로 벗어나기 어려운 구조적 제약 때문인 경우가 많았다. 지역에서 가용한 자원은 제한적이며, 가족 외의 지원체계를 상상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좁았다. 이러한 배경은 여러 연구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가족이 삶의 중심적 단위가 되는 문화적 특성과도 연결된다. 그러나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가족의 중요성을 문화적으로 공유하고 있음에도, 실제로는 가족으로부터 정서적·물적 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였다. 이는 가족이 보호의 공간으로 기능하지 못할 때 오히려 고립이 강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여러 참여자들은 가족이 집이 되거나 갈등의 원인이 되어, 외부의 한정된 자원이 생기면 이를 기반으로 가족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동시에 가족과의 관계를 단절하지 못해 죄책감이나 책임감을 경험하기도 했다. 가족의 부재는 곧 ‘혼자’라는 감각으로 이어지고, 일부 참여자는 이를 대체하기 위해 연인과 새로운 가족 구성을 서두르기도 했으나, 이러한 관계 역시 안정적으로 기능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어린 시절 부모의 실질적 부재 속에서 조부모와 성장한 Y07은, 현재까지도 부모 부재를 결핍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는 조부모를 돌봄 제공자로 인정하지만, 자신이 상상하는 ‘정상적 가족’은 여전히 부모가 중심에 있는 형태였다. 이러한 인식은 고립 경험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Y07: 고립이라는게 사실 뭔가 가족들이 뒷받침 되면은 잘될 수가 없거든요. 가족 관계가 좋으면 그렇잖아요. 막 이렇게 밥이라도 먹고 이렇게 산책이라도 나가면 금방 괜찮아지는 게 또 사람이거든요. (중략) 이렇게 나가는 걸 좋아하면서도 어느 순간 ‘인생은 혼자야’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뭔가 혼자 되었다고 느껴서 그랬지 않나.

그는 자신에게 실질적 안전망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명확한 대답을 하지 못했다. 심리상담을 통해 ‘스스로가 중심을 세우는 것’의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었지만, 이는

실제 위기 상황에서 기능적으로 작동하는 안전망과는 거리가 있었다.

Y07: 안전망이요? 근데 그 삶에서 안전망은 저이지 않나요? 근데 그런 안전망이 뭔가 안전망이라고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아직 부족한, 부족한 것 보다는… 안전망이 있어요? 남편분인가요?

이 발화는 ‘자기 자신을 안전망으로 규정하는 것’이 실제 사회적 지지체계의 부족을 반영하는 현상임을 보여준다. 지역 자원이 충분히 연결되지 않는 환경에서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 정서적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Y07은 결혼을 망설이는 이유 중 하나로 “보고 자란 모델이 없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정상적 가족 모델의 부재는 향후 가족 구성에 대한 불확실성과 두려움으로 이어졌고, 이는 관계 형성에서의 주저함으로 나타났다.

Y07: 좀 약간 엄마 아빠가 막 화목하게 있고. 좀 잘 살거나, 잘 사는 거보다 싸우더라도 거기에 뭔가 정이 있으면 그래도 결혼하려고 하고… 근데 저는 아예 그런 걸 못 보고 자랐으니까, 그런 게 아예 없는 거예요. 결혼도 사실 이 정도 사귀었으면 결혼하고도 남는 시간인데, 그런 생각이 좀 안 드는 거예요.

또한, 연인과 그의 가족이 보여주는 가부장적 태도는 Y07에게 추가적인 부담이 되었다.

Y07: 생일날 케이크를 사 왔어요. ‘미역국은 없냐’ 뭐 이런 얘기를. (...) 아무리 봐도 어머니랑 나랑 있을 때 불리한 건 같다. (...) 내 편을 들어줘도, 나는 이미 다쳤는데.

연인은 원가족과의 관계에서 중재자로 기능하지 못했고, 이는 Y07이 관계적 안정감을 확보하는 데 큰 제약이 되었다. 이러한 조건은 연인 관계가 실질적 안전망으로 작동하기 어렵게 만들며, 고립이 완화되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장애 요소가 된다.

Y07의 주변 친구들은 이미 결혼·출산을 경험한 경우가 많았고, 이러한 관계망 내에서 결혼과 가족 구성은 기대되는 경로로 기능했다.

Y07: 친구들이 이제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닌데도 좀 강요를 하게 돼요. ‘야 빨리 결혼해야지, 빨리 애 낳아야지’ (...) 근데 이게 나는 다른 거예요. (...) 다른 건 맞는데 틀리다는 느낌을 자꾸 들게 하는 거예요.

후에 이야기하겠지만, 청년 여성에게 제한된 노동시장 구조는 안전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결혼이라는 선택으로 이끄는 경우가 많다. 청년 여성에게 결혼은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자 사회적 압박이다. 따라서, Y07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무척 제한적이다. 우선, 자신의 지지체계가 되어줄 가족이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기에 근원적 외로움이 존재한다. 이를 친구와 연인 관계를 통해 극복해보고자 했지만 친구들은 결혼이라는 선택을 함으로써 관계에 거리가 발생하고, 친구들과 같은 선택을 하기에는 가부장적인 환경으로 자신을 내몰아야 한다. 결론적으로 그에게 필요한 가족이라는 이상에 다다를 수 없다.

3.3 제한된 일자리

Y10은 가족의 권유로 대학에 진학할 때 간호학과를 선택했다. 가족의 권유가 진로를 결정하게 되는 과정은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청년 여성에게는 흔한 상황이다. 이들에게 권장되는 일자리는 공무원과 간호사 둘 중 하나다. 차이가 있다면 간호사는 비교적 어린 나이에 권유받고, 공무원은 대학 졸업 시기부터 시작해 장기간에 걸쳐 제안된다는 점이다.

Y10: 처음에 제가 막 간호사가 되고 싶어서 간 건 아니었고, 그냥 그것도 주변의 권유로. '여자로 살면서 이 정도의 직업 괜찮다' 그런 것들이 크니까. 그때 좀 약간 '내가 간호사가 돼야지' 하고 갔다가보다는 그냥 부모님이나 뭐 주변에서 '간호학과를 가라고 하네, 가야지' 약간 이렇게 하고 간 거여서. 뭔가 그래도 근데 지방을 옮겨 다니면서 간호사가 그래도 일자리가 구하려면 구할 수 있으니까. 뭐 물론 내가 만족하느냐에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하려면 할 수 있다는 게 크다(고 생각함).

한국 사회에서 자원이 제한된 대부분의 사람은 학창시절을 보내는 와중에 자신의 선호나 흥미, 적성에 관해 깊이 있게 고민할 기회가 별로 없다. 그도 마찬가지로 대학을 선택할 당시에는 자신의 선호를 고민하지 못했기에 주변 어른들의 권유가 강하게 작용했다.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중장년 세대에게 '여자로 살면서' 괜찮은 직업은 흔치 않다. Y10도 그 사실을 알고 있어 일을 구하려면 구할 수 있는 지금의 상황이 싫지는 않다.

사실 성인이 된 후 그는 다른 직업을 알아봤었다. 일을 하며 여러 어려움이 부딪히고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문화 기획자'라는 직업에 관심을 생겨 짧게나마 활동했다. 문화 기획은 '정말 재밌고, 에너지도 엄청 생기는' 일이지만 불안했다. 소속도 없고, 안정된 소득도 없었으며, 자신이 재능이 있는지도 확인할 수 없었다.

Y10: 약간 문화 기획 이런 거 관심이 있었어 가지고 그런 걸 해보려고 작년에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 저랑 안 맞는 것 같아요.

안: 어떤 게 안 맞았어요?

Y10: 약간 뭔가 재밌기는 정말 재밌고 에너지도 막 엄청 생기고 그랬는데, 약간 그런 걸 계속하다 보면 계속 불안감이랑 싸워야 되잖아요. 내가 어떤 걸 만들어가는 게 이게 맞나 이거에 대한 불안감도 있고. 제가 어디에 소속돼서 일했던 게 아니고 또 돈을 벌지도 못했고. 그냥 혼자 뭔가 사부작사부작 하는 거니까 돈도 안 되고. 근데 내가 이걸로 어떤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불안감도 있고. 내가 여기에 좀 재능이 있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그러면서 약간 그런 프로젝트를 작은 걸 맡아서 했을 때도 그래서 제가 그때 '아 내가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이 엄청 크구나'라는 걸 느꼈거든요. 그냥 어떻게 가볍게 생각하고 갈 수도 있는 건데 저한테는 그게 너무 되게 버겁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뭔가 '아 이거는 약간 자기 자신에 대한 뽕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믿는 어떤 지향하는 신념에 대한 뽕이 있어야 계속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다' 저는 그건 없었거든요. 그냥 내가 '나 좀 잘해' 이런 것도 아니었고 '내가 이렇게 해서 사회를 더 멋진 곳으로 만들겠어' 막 이런 뿌의 꿈을 갖는 사람도 아니었고. 그

러니까 약간 안정감에 대한 그게 욕구가 커져가지고 다시 간호사로 돌아간 것 같아요.

Y10은 자신이 불안에 대한 감각이 높아 꿈을 포기했다고 말했지만, 외부적 지원이 없다면 그가 말한 것처럼 소속과 안정된 소득 없이, 자신의 역량을 확신하지 못한 채로 일을 지속하기는 어렵다. 누구에게나 불안이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물론, 나를 포함한 많은 프리랜서 여성들이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일한다). 그는 현실적인 이유로 인해 다시 안정된 직업, 간호사로 돌아간다.

어른들의 말처럼 간호사는 ‘여자로서 살아가기에’ 안정된 몇 안 되는 직업이었던 것이다. 안정의 의미를, 원활할 때 즉시 일을 구할 수 있으며 소득이 보장된 직업으로 한정하면 그렇다. 여기에 당사자의 흥미와 적성, 그리고 꿈은 포함되지 않는다.

Y08은 남자친구와 관계를 오래 유지하기 위해 간호학과 입학을 준비 중이다. 간호학과를 선택한 이유는 남자친구와 같은 업종에서 일하고 싶은 마음이 커서였고 남자친구의 권유도 있었다. 하지만 자기 안의 동기가 아니어서인지 공부가 잘 되지 않는다. ‘아픈 엄마를 보살피는데’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으로 공부할 마음을 다잡아보는데도 여전히 동기부여가 어렵다.

Y08: 이게 남자친구가 의료계 쪽이라서. 네 저도 의료계 쪽으로 가고 싶어서 영향을 받았어요. 일단은 남자친구랑 오래 관계 유지를 하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뭔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사실 나를 위해서 준비하는 게 아니라 그런 관계 유지를 위해서 한다는 게, 뭔가 저 스스로 이렇게 동기가 부여된 게 아니니까 더 공부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언제부턴가는 어떤 계기로 ‘그냥 내가 좀 경제적으로 나아져서 좀 엄마를 보살펴야겠다’라고 그러니까 간호과 나와서 엄마를 보살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때 전환을 시키려고 했어요. 그때 뭔가 엄마한테도 죄책감, 부채감 같은 게 많아서. 근데 그렇게 전환이를 시키려고 했는데 잘 동기부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가 간호학과를 선택한 이유, 공부를 하는 동기는 모두 외부를 향한다. 남자친구와 가족. 남자친구와 가족은 Y08을 둘러싼 관계의 전부다. 타인에게 도움이 되고 타인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과 진로 이행이라는 자신의 시기적 필요가 만나 간호사라는 직업을 선택했다. 비수도권에서 유독 간호사라는 직업이 선호되는 데에는 이들이 청년 여성인 때문이다. 청년 여성에게는 타인을 돌보는 행위가 기대되며 그것을 수행했을 때 긍정적인 반응이 돌아온다. 현장에서 간호사는 의료계 종사자이지만 이미지로서 간호사는 돌봄을 포괄하므로 청년 여성에게 어울리는 직업으로 그려진다.

Y08: 거기가 병원 0대 병원이라고 0대 병원 근처였는데, 학생들 간호과 있는 그런 대학교인데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거기 가게가 간호과 학생들 많이 거쳐갔나 봐요. 그래서 다른 지역 경력밖에 없으니까 알바 경력이. ‘여기는 어떻게 내려오게 됐냐’고 그러셔서 솔직하게 말했어요. 남자친구 얘기는 안 하고, 그냥 ‘진로 문제로 먼저 내려갔다고, 간호과 지망하고 싶어서’ 그랬더니 사장님의 그걸 좋게 보셨어요. 간호과 학생들이 경력이 없어도 되게 잘하고 갔나 봐요.

타지에서 이주한 Y08은 단지 해당 지역 대학의 간호학과를 지망한다는 이유로 구직에 성공한다. 비수도권에서 간호사인 청년 여성은 ‘성실하고 착한’ 사람들로 그려

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간호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어도 늘 환대받거나 적절한 인정을 받지는 못한다.

앞서 어른들의 조언으로 간호사가 된 Y10은 살아온 지역에서 일을 시작했지만 적응이 쉽지 않았다. 첫 직장을 그만두고 공무직 간호사가 되고자 했지만 자신이 살던 지역에는 자리가 없었다. 인구수가 적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 공무직 간호사 일을 시작하고 그곳 주민들과 갈등을 겪게 된다.

Y10: 진료소에는 간단한 약 처방을 해줘요. 감기나 보통 이 정도 진짜 가벼운 것들에 대한 진료를 봐주는데 여기는 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간호사니까 원래는 처방권이 없는데 유일하게 처방권이 있는 간호사인데 그래서 이제 원칙상 3일 치밖에 못 줘요. (중략) 원칙대로 하려고 하니까 막 뒷말이 나오고 뭐 어떤 할머니는 와 가지고 ‘할머니들끼리 너를 얼마나 욕하는지 아냐’ 뭐 이런 얘기하시고. 또 어떤 할머니는 몇 년간 이제 진통 소염제를 매일매일 드시는데 또 위가 아프셔요. 그게 부작용이 위 쪽인데 그러면 이제 위장약을 아무리 먹어도 이게 똑같은 그거잖아요. 그래서 ‘약을 병원에 가시면 위장 부작용이 덜한 약이 있다. 그거를 처방받아 드셔라. 우리는 그 약이 없다’ 해도 절대 안 들으시고. 그러면 또 계속 싸우고. (중략) 돈이 없고 있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그분들은 그렇게 살아오셨기 때문에. 근데 저는 또 그게 자존심상 그분들한테 그게 줘주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싸우다가 갈등을 빚은 적도 있고 그리고 나서 네 약간 좀 지쳤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저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얘기인데 저분들은 그냥 내가 이렇게 유도리 없이 한다 뭐 그런 얘기들이 들리고 하니까 약간 혼타가 오고.

그의 상황은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소도시의 배경을 알아야 이해할 수 있다. 병원이 먼 지역의 진료소 간호사는 간단한 약 처방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처방 권한이 제한적이고 줄 수 있는 양도 많지 않다. 그런 상황을 지역 주민들은 이해해주지 않는다. 선호되는 직업으로서의 간호사와 달리, 실제 현장에서 간호사로서 그들의 전문성은 존중받지 못한다. 자신들이 편한 방식대로 해주지 않으면 건강을 위해 하는 조언도 묵살되고, 더 나아가 ‘뒷말’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Y10은 이런 상황에 지쳐 또 다시 일을 그만두고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게 된다.

비수도권은 청년 여성과 좋은 일자리의 연결이 부자연스러운 세계다. 청년 여성은 직업 선택의 폭이 좁고, 선택지가 많지 않다. 그 선택지 중 하나로 간호사라는 단어가 호명된다. 부모님들의 말처럼 비교적 수월하게 일을 구할 수 있어 안정적으로 보인다. 거기다 성실하고 착한 이미지를 가진 직업으로서 선호되지만 동시에 그들의 전문성은 온전히 인정받지 못한다. 사람들이 이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돌봄의 역할을 수행하는 성실하고 착한 젊은 여성이지 전문가가 아니다. Y10이 경험한 것처럼, 현장에서 자신의 의견과 전문성을 드러내도 이는 수용되지 않는다. 결국, 여성이라는 ‘낮은 위치’의 존재에 맞는 직업은 드물고, 간호사라는 직업은 그 제한된 선택지 중 하나다.

3.4 자원 이용의 한계

여성 청년에게 고립 여부는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였지만, 정신건강 문제는 비교적 명확하게 인지되었다. 이는 정신건강의 경우 병원과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증

심으로 한 진단 체계가 갖춰져 있어 당사자가 자신의 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제공되기 때문이다. 고립에 대한 사회적 기준이 충분히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당사자와 주변인 모두 고립을 정신건강 문제의 연장선에서 이해하는 것이 더 익숙한 방식처럼 작동하고 있었다.

Y08의 사례는 이를 잘 보여준다. 그는 고립 상태에서 집 안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자 아버지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고, 센터를 통해 정신과 진료를 연계받았다. 그 과정에 대해 그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Y08: 아버지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락을 해서 센터에서 집으로 방문을 왔어요. 그때 병원도 연계해주고, 임상심리검사까지 다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그때 처음 정신건강 문제라고 인식을 했던 것 같아요. 우울증이 있다고 했는데, 저는 원래 사회공포증 같다고만 생각했거든요.

고립 당사자인지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웠던 그는, 우울증 진단을 받은 이후에야 자신의 상태를 “문제”로 인지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진단이 회복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그는 약물 복용을 수년간 이어왔지만 치료 효과가 뚜렷하게 느껴지지 않았고 복약 습관도 안정적으로 자리 잡지 못했다.

Y08: 먹고 나서 더 멍해지고, 그냥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요. 약을 먹기 전으로.

진단이 곧바로 삶의 변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은 다른 참여자에게도 드러났다. Y10은 우울감이 심했던 시기에도 병원 진단을 받는 것을 부담스러워했다. 그는 병원 방문을 주저한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Y10: 병원도 고민하긴 했는데, 진단을 받으면 내가 ‘환자’가 되는 것 같아서요. 그 낙인 같은 게 더 두려웠어요. 그래서 상담만 받았어요. 상담 선생님이 약물도 나쁘지 않다고 하긴 했는데, 일상생활이 조금은 되는 상태니까 그냥 버텼던 것 같아요.

병원 진단에 대한 심리적 저항은 여러 참여자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고립을 스스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만큼이나, 정신질환 진단 또한 정체성의 일부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두려움이 존재했다.

그러나 상담은 병원보다 접근성이 높고 부담이 적어 도움이 된 사례가 많았다. 예술인 심리상담을 이용한 Y09는 상담이 위기 시기를 지나도록 버티게 해준 중요한 자원이었다고 말했다.

Y09: 처음 상담받을 때 울고 불고 했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건강해져서 얼마나 다행이냐’고 하더라고요. 그때 진짜 도움 많이 받았어요.

하지만 상담조차 비수도권 청년에게는 여러 제약이 존재했다. 지역 내 상담기관의 수가 적고, 상담사가 특정 지역사회와 촘촘히 연결돼 있어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우려가 컸다. Y10은 자신이 근무하던 작은 지역에서 마음건강 사업을 신청할 경우 신원이 드러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지원을 포기했다.

Y10: 제가 신청하면 제 이름이 공문으로 떠서 직원들이 볼 수도 있거든요. 너무 작은 사회라 다 알아요. 그게 신경 쓰여서 그냥 포기했어요.

또한 상담기관이 지역에 충분하지 않아 장거리 이동이 필요하거나 원하는 방식의 상담사를 선택하기 어려웠다. 상담이 실제 도움이 된다는 경험을 했던 Y09 역시, 서울에만 있는 예술인 상담센터 때문에 장거리 이동을 반복해야 했다.

이처럼 정신건강 문제는 고립보다 먼저 당사자에게 인지되는 경향이 있으나, 정작 정신건강 서비스 접근성은 지역에 따라 크게 좌우되었다. 진단 체계의 명확성은 장점이지만, 병원 진단에 대한 낙인 우려, 지역사회 내 익명성 부족, 상담기관의 부족 등으로 인해 실제 이용에는 많은 장벽이 존재했다.

결과적으로 여성 청년의 정신건강 문제는 고립과 긴밀하게 얹혀 있지만, 제도적 접근 가능성은 지역적 조건과 문화적 요인에 의해 크게 제약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고립에 대한 정책적 접근이 정신건강 문제와는 다른 방식으로 구축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수도권 청년 여성의 삶의 조건은 세대 내 격차, 가족 중심 구조, 제한된 직업 선택지, 수도권 대비 취약한 자원 접근성이 종합된 결과로 나타난다. 동일한 ‘청년’ 범주 안에서도 일부는 능력주의 경쟁에서 일찍 배제되고, 일부는 경쟁에 남아 있으나 지속적인 소진과 고립을 경험한다. 가족과 연인은 안전망이자 동시에 제약으로 기능하며, 간호사·공무원 등 소수의 직업 경로는 안정성을 제공하는 동시에 자기 선택의 폭을 제한한다. 정신건강·청년정책 자원 역시 지역에 따라 접근성이 크게 달라, 비수도권 청년 여성은 제도적 지원에서 반복적으로 멀어지게 된다. 이러한 조건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이후 고립 청년 정책이나 대안적 돌봄 체계를 설계하는 논의 역시 현실의 층위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

4장. 비수도권 청년 여성의 내일

수도권·비수도권 청년의 고립 요인을 분석한 이수비·전예빈의 연구에 따르면, 청년 고립의 핵심 요인은 상대적 박탈감, 우울, 그리고 대인관계 능력 부족으로 요약된다. 상대적 박탈감이 높고 우울이 깊을수록, 그리고 사회적 관계를 맺는 능력이 낮을수록 고립 수준은 심화된다.

지역별로 보면 고립의 성격은 다르게 나타났다. 수도권 청년의 고립은 현재의 생활 조건과 밀접하게 연결되었다. 안정적 일자리의 부재, 월세·생활비 부담, 부모 지원 없이는 주거 마련이 어렵다는 인식 등이 고립을 심화하는 요인으로 작동했다. 수도권 중심주의가 만들어낸 고비용 구조 안에서 청년들은 끊임없는 비교와 경쟁에 놓여 있으며, 이러한 구조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이들은 고립을 더 깊게 경험하게 된다.

반면 비수도권 청년의 고립은 현재 조건보다는 미래 전망과 위기 대응 능력과 더 밀접하게 관련되었다. 갑작스러운 경제적 위험에 대응할 수 없다고 느끼거나, 5년 뒤 삶이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낮을수록 고립은 심화되었다. 이는 비수도권 청년에게 지역 안에서의 지속가능한 삶의 전망 자체가 차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인터뷰에서 드러난 미래 이미지 역시 이 연구 결과와 맞물려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었다.

4.1 언급된 미래

①막연함

이들은 현재 지역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느끼며, “다른 곳에서 가능성을 찾아야 한다”는 감각을 공유했다. 이 유형의 발화는 연구에서 제시된 ‘미래 전망의 결여 → 고립 심화’ 구조와 정확히 일치했다.

Y06: 그걸(미래를) 생각을 거의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한 번씩 요즘은 해외에서 몇 달 살아보고 싶다 정도는 생각해요. 여기는 낙동강밖에 없으니까, 바다 보면서 멍 때릴 수 있는 삶… 그냥 그 나라 언어도 배우고 사람도 만나고, 그 정도만 해도 좋을 것 같고.

Y11: 불안하게 하는 요소가 없는 환경이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덥거나 너무 춥지만 않으면. 캐나다가 살기 좋다던데, 그런 곳이면 좋겠죠.

막연한 해외 생활은 실제 실행 가능성보다는 “지금의 지역에서는 답이 없다”는 감각을 표현하는 방식이었다.

②관계

일자리나 사회적 역량보다, ‘누구와 함께 살 것인가’가 미래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로 등장했다.

전통적 가족 형태(결혼·동거)를 미래의 안정 기반으로 상상하는 경우가 많았다.

Y07: 꿈꾸는 삶을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집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과 저녁을 같이 먹고, 여행 다녀오면 친구들에게 작은 기념품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여유.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Y10: 원래 결혼 생각이 없었는데 살다 보니까 ‘이래서 사람들이 결혼을 하는구나’ 싶더라고요. 그냥 편하게 만날 수 있는 관계들, 퇴근하고 ‘술 한 잔 할래?’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관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Y08: 그 친구는 의료 쪽으로 성공하고, 나도 간호사가 되고. 그런 미래요.

이 유형에게 미래는 직업·재정이 아니라 관계적 안정감을 기반으로 상상된다. 불확실성을 주변의 가장 익숙한 모델인 ‘가족 형태’로 해결하려는 방식이다.

③ 흥미와 가치

주로 서울 경험이나 해외 경험이 있는 참여자(Y01, Y09) 또는 고립 경험을 정체성으로 수용한 참여자(02, 03)에게서 나타났다.

③-1. 관계보다 “새로운 자극·다양한 연결”을 중시하는 경우 (01, 09)

Y09: 한 지역에서 오래 사는 게 힘들어요. 계속 바뀌고, 새로운 자극이 있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그게 제 성미에 맞더라고요. 그래서 서울과 C지역을 오가며 살고 있어요.

Y01: 주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흥미로운 일을 벌이는 사람이고 싶어요. 축제든 소풍이든… 규모는 상관없이 기획자로 살고 싶어요.

③-2. 고립을 계기로 “대안적 공동체·돌봄 구조”를 상상하는 경우 (Y02, Y03)

Y02: 혼자 사는 건 안 맞아요. 북적북적한 게 좋아요. 가족과 살기는 힘드니까, 나와 비슷한 친구들과 규칙을 잘 만들어서 같이 사는 공동체에서 살고 싶어요.

Y03: 돈이 많다면, 우울증 관련 재단을 만들고 싶어요. 고립 상태라도 세상은 생각보다 인간적이고 따뜻하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걸 다른 사람들도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들에게 고립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연결 경험을 제공한 계기였다. 고립 경험을 공유한 타인과의 만남이 정체성을 구성하고 미래를 확장시키는 새로운 기반이 되었다.

인터뷰 분석에서 나타난 미래 전략은 고립의 조건과 긴밀하게 맞물려 있었다. 막연한 해외 생활을 말하는 경우는, 지역 내 자원이 희박하고 고립 위험이 높은 상태였다. 가족 중심 미래를 그리는 사례는, 돌봄 공백을 남자친구·결혼으로 보완하려는 구조에 가깝다. 가치 기반의 미래를 설계하는 이들은 고립을 계기로 새로운 관계·공동체를 구축한 경우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일자리와 주거 서사가 거의 등장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수도권 청년의 고립은 주거·직업 요인과 밀접하지만, 비수도권 여성 청년의 미래 발화에서는 주거와 일자리가 부재했다. 이는 지역 노동시장의 빈약함 때문에 “안정된 일자리”라는 상상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스스로 기대하지 않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즉, 비수도권 청년 여성의 미래 상상은 사회적 기준(좋은 일자리·경제적 성공)과 멀어져 있으며, 이는 단순한 ‘개인 성향’이 아니라 구조적 결핍이 만들어낸 낮은 기대의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4.2 우정의 가능성

비수도권 청년 여성에게 가족은 여전히 가장 가깝고 오래된 관계이지만, 그 관계만으로는 정서적 안정이나 돌봄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다. 원가족이나 애인 외의 관계가 부재한 상황에서 새로운 관계의 가능성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Y08에게 다른 관계에 대한 필요성을 물었다.

Y08은 자신이 원하는 관계로 ‘동성 친구’를 언급했지만, 실제로는 여성 친구를 사귀는 경험이 거의 없었다. 그는 중학교 시절 학교폭력을 겪은 이후 여성 또래와의 관계에서 편안함을 느끼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Y08: 저는 동성 친구 가지고 싶은데 동성 친구를 사귀는 게 좀 어렵다 보니까 이성 친구보다 덜 편한 것 같아요. 이성 친구는 그래도 이끌어주는 게 있는데, 동성 친구는 제가 이끌어야 할 것 같아서 부담이 있어요.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관계가 ‘동성 친구’인 이유는 명확하다. 현재 관계망의 중심이 애인 한 명뿐이기 때문이다. 애인의 존재는 정서적 지지이지만 동시에 의존을 심화 시켜 관계가 흔들릴 경우 고립 상태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두려움이 존재한다.

Y08: 사실 도망가고 싶거든요.

안: 무엇으로부터요?

Y08: 애인으로부터요. … 차라리 본가로 가서 편해지고 싶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러면 다시 고립이 시작될 것 같아서 막막해요.

애인의 설득으로 지역을 떠났지만 정착 조건은 갖춰지지 않았다. 애인이라는 사적 자원,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정도 외에는 새로운 관계나 연결이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원가족이 있는 지역으로 돌아가도 그곳 역시 자원이 없다는 점에서 선택지로 기능하지 못한다.

태어난 지역에서 계속 살아온 Y07은 오랜 친구들이 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친구들의 결혼과 출산을 계기로 관계의 성격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Y07: 친구들을 엄청 좋아하는데, 이 친구들이 계속 있을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혼하고 아이 생기고 그러니까 확확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친구들이랑 멀어지겠구나, 그럼 새 친구를 만들어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러려면 취미가 필요하겠죠.

그가 언급한 ‘취미’는 단순한 여가활동 확대가 아니라, 줄어든 관계의 공백을 메우려는 시도다. 하지만 관계 상실에서 오는 감정적 공백이 단순 활동 참여만으로 충족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러한 시도는 일종의 임시적 대처라고 볼 수 있다.

다른 지역에서 거주했던 Y10은 고립을 경험한 후 결혼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고립이 심화되면서 결혼이라는 전통적 모델이 삶의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처럼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그가 가장 그리워한 것은 결혼이라는 미래가

아니라, 고향에 있는 오랜 친구들이었다.

Y10: 그냥 고향에 가서 사는 거? 편하게 만날 수 있는 관계가 있었으면 좋겠고, 퇴근하고 ‘술 한 잔 할래?’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친구들이 그리워요. 여기도 친구들이 있지만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편하지는 않거든요. 그래도 또 생길 수도 있겠죠.

비수도권의 열악한 문화 자원과 활동 선택지 부족은 고립을 완화할 수 있는 비형식적 관계 형성을 어렵게 만든다. 수도권의 경우 많은 선택지가 비용을 요구하나, 비수도권은 애초에 선택지가 부재하다는 점에서 더 근본적인 한계에 놓인다. 결국 이러한 조건은 청년 여성들에게 “결혼 외의 다른 대안이 없다”는 감각을 강화한다.

Y10: 예전엔 결혼을 이렇게 급하게 할 수 있나 이해가 안 됐는데, 서른이 가까워지고 친구들이 한 명씩 가니까 ‘아, 이런 마음이구나’ 느꼈어요. 여긴 할 게 없어요. 서울은 소모임도 많고 배울 것도 많은데, 여긴 취미생활의 풀도 작고…

Y07과 Y10이 말하는 ‘취미’의 부재와 ‘관계’의 부재는 결국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지역의 협소한 문화·여가 기반, 부족한 일자리, 개인의 자아를 드러내기 어려운 분위기에서 이들이 상상하는 삶의 결핍은 곧 여성 또래 관계의 부재, 지속 가능한 연대의 부재로 나타난다. 여성 동료성과 친구 관계가 만들어주는 위로·정보·연결의 감각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이 여성 친구에게서 느끼는 감정은 ‘회피’가 아니라 ‘그리움’이다. 여성 친구와의 친밀한 관계를 가져본 적이 적거나, 결혼과 육아로 멀어진 과거의 관계를 잃은 경험에서 오는 그리움이다. 하지만 청년 여성 중 누구도 결혼 외의 형태로 함께 살아가는 대안적 공동체 모델을 언급하지 않았다. 이는 이들이 속한 지역사회에서 결혼이 사실상 유일한 ‘함께 사는 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그 외의 형태를 상상할 기회 자체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친구들은 자신의 세계가 ‘정상적 삶의 경로’라고 믿고, 인터뷰 참여자를 다시 그 경로로 데려오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Y07: 주위에는 다 결혼하고 얘기 낳고 이렇게 살아요. 저는 생각이 다른데, 친구들은 저를 강요하려는 건 아니지만 ‘빨리 결혼해야지, 애 낳아야지’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친구들은 좋아 보이고 잘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냥 다른 거예요.

이러한 맥락에서 비수도권 청년 여성에게 결혼은 단순한 선택지가 아니라, 관계적 고립을 우회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경로, 혹은 지역을 떠날 수 있는 명분이자 합리화 장치로 작용한다. 결혼을 원해서 선택한다기보다, 결혼 외의 선택지가 현저히 적기 때문이다.

비수도권 청년 여성의 관계 경험을 살펴보면, 가족과 애인으로 대표되는 기존의 관계망은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삶을 지탱하기 어렵다. 친구 관계는 결혼·육아로 인해 자연스럽게 희미해지고, 지역의 협소한 문화·여가 자원은 새로운 관계의 형성과 유지 자체를 어렵게 만든다. 이때 결혼이 대안으로 지나치게 부각되지만, 이는 결혼이 갖는 본래의 의미라기보다 선택지가 부족한 조건에서 발

생한 구조적 압박에 가깝다. Y07과 Y10이 반복적으로 언급한 ‘취미’, ‘친구’, ‘결혼’은 모두 현재의 외로움과 공백을 메우기 위한 장치였으며, 그 근저에는 여성 또래 관계와 연대의 부재가 자리한다.

이러한 조건은 현재 가족제도와 돌봄 구조의 한계를 더 선명하게 드러낸다. <아주 친밀한 폭력>에서 갓비는 가족 제도를 구성하는 감정 노동과 젠더 권력의 문제를 지적하며, 가족이 유일한 안전망으로 기능하는 사회 구조 속에서는 가족을 벗어나는 순간 개인이 완전히 고립될 위험에 놓인다고 설명한다.

“가족의 의무를 대체할 제도가 없기 때문에 가족을 벗어나면 오로지 개인만 존재한다는 사실이 부담이 된다… 가족 단위를 고립된 개인으로 바꿀 수는 없다.”

이 지적은 특히 비수도권에 사는 청년 여성의 현실과 긴밀히 맞닿아 있다. 가족이 실질적 돌봄을 제공하지 못할 때, 혹은 폭력적일 때조차도 가족을 끌어내기 어려운 이유는 그 밖을 받쳐줄 다른 안전망이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Y02와 Y06이 말한 “가족을 떠나면 완전히 혼자 된다”는 감각은 이러한 구조적 맥락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이 문제는 개인의 한계나 심리적 취약성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관계적 단절 속에서도 서로의 취약성을 드러내며 새로운 연결을 만들려는 시도는 분명 존재 한다. 어느 날의 인터뷰에서 02, 06은 각자의 외로움과 불안을 나누다가 “그래도 오늘 이야기해서 후련했다”, “정리가 된다”라고 말했고, 06은 잠시 망설였던 이사 문제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을 옮긴 02의 사례에서 힌트를 얻어, 지금 사는 곳 외에도 인적 자원이 존재하며 “그 안에 우리도 포함되는 것 같다”고 표현했다. 서로의 어려움을 해결해준 것은 아니지만, 대화를 통해 서로를 지탱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한 순간이었다. 이 경험은 기존의 가족·연애 관계가 제공하지 못하는 돌봄이 ‘타인’에게서도 생성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즉, 가족 바깥에서도 서로가 안전망이 될 수 있다는 새로운 돌봄의 감각이 형성되기 시작한 셈이다.

이 지점에서 갓비가 제안한 ‘동료애적 돌봄’은 중요한 대안을 제시한다. 동료애는 법적·혈연적 관계에 기반하지 않고, 사유화된 애착이 아니라 연대에 기반한 확장된 친밀성을 가능하게 한다. 여성들이 서로의 삶을 지탱하는 관계를 만들어갈 때, 기존 가족 제도가 갖지 못한 돌봄의 형태가 현실화될 수 있다.

청년 고립을 경제·기술적 변화로만 설명하는 기존 논의는 이러한 돌봄의 상실 문제를 포착하기 어렵다. 포스트 코로나의 사회적 단절, 플랫폼 노동, 비대면 소통 증가 등은 고립의 중요한 배경이지만, 오늘날 청년들이 고립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근본적 이유는 돌봄이 가족 내부로만 집중된 사회 구조에 있다. 돌봄이 작동하지 않는 순간, 개인은 모두 고립의 위험에 놓인다.

따라서 필요한 것은 고립을 ‘은둔-비은둔’으로 나누는 이분법을 넘어서, 취약성이 드러날 수 있는 사회적 환경, 함께 버틸 수 있는 관계, 제도가 이를 보조하는 구조다. 취약함은 결합이 아니라 연결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청년기 고립을 경험한 여성들이 보여준 사례처럼, 서로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듣는 관계는 가족·연애·지역을 넘어 새로운 연대의 기반이 될 수 있다.

결국, 고립의 전환 가능성은 더 많은 ‘강함’이 아니라 더 많은 ‘곁’에서 출발한다.

누구나 고립될 수 있음을 인정하는 사회, 그리고 서로의 취약성을 감당할 수 있는 관계가 촘촘히 배치된 사회에서 비로소 고립의 구조는 완화된다. 이는 가족을 대체하는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돌봄의 책임을 가족에서 사회 전체로 확장하는 상상력이며, 청년 여성의 고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접근이다.

5장. 결론 및 시사점: 고립 이후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

이 연구는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이행기와 가변성이라는 특징을 가진 청년기에 주목하여 청년 여성의 고립을 삶을 구성하는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경험으로 포착하고자 했다. 2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들은 자신을 고립 상태라고 명명하는 데 주저하며, 고립과 비고립, 위험과 완전한 단절 사이를 왕복한다. 3장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이 개별 심리의 문제가 아니라 능력주의·수도권 중심주의·가족 중심 돌봄 체계·열악한 노동시장과 자원 분포가 겹쳐진 결과임을 보았다. 4장에서는 이와 같은 조건 속에서 비수도권 청년 여성들이 어떻게 미래를 상상하고, 어떤 관계와 돌봄의 형태를 모색하는지 분석했다. 이 장에서는 앞선 논의를 정리하며, 비수도권 청년 여성의 고립을 이해하기 위한 몇 가지 핵심 관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5.1 고립을 둘러싼 조건의 입체성

2장은 “고립 정체성”에 대한 의심에서 출발했다. 참여자들은 스스로를 은둔형 고립으로 보지 않으면서도, 실제로는 애인·가족 외에는 거의 아무와도 소통하지 않는 상태를 설명했다. 이들은 애인이 있기 때문에 나‘는 고립이 아닐 수 있다’, ‘상담을 받고 있으니 예전만큼 고립은 아니다’와 같이 자신을 위험 밖에 두려는 표현을 반복했다. 그러나 면접 과정에서 드러난 것은, 고립이 한 번 ‘벗어나면 끝나는 상태’가 아니라는 점이다. 제한된 관계만을 유지하는 시기, 외출과 활동을 시도했다가 소진 후 다시 방으로 돌아오는 시기, 잠시 관계가 늘어났다가 재고립하는 시기가 반복되었다.

이 움직임의 배후에는 지역·가족·일자리 구조가 자리한다. 3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비수도권 청년 여성들은 출발 지점부터 기회 구조가 제한적이었다. 딸을 서울로 보내지 않는 부모의 결정, 여성에게 닫힌 지역의 진학·진로 경로, 간호사·공무원처럼 소수의 직업만이 “여자로서 괜찮은 일”로 호명되는 문화가 그것이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고립은 실패한 개인의 결과가 아니라, 애초에 선택지가 적은 삶에서 더 쉽게 겪게 되는 위험으로 나타났다.

한편, 고립 경험은 가족·연인과의 관계를 통해 증폭되거나 완화되었다. 가족은 공식적 안전망이지만, 참여자들의 서사에서 가족은 폭력과 무관심, 책임 전가의 공간이기도 했다. 돌봄을 받지 못한 장녀는 오히려 가족을 돌보는 위치에 서 있거나, 폭력의 표적이 되기도 했다. 이러한 조건에서 남자친구는 유일한 정서적·생활적 안전망이자 유사가족으로 기능했다. 그러나 안전망이 한 사람에게 과도하게 집중될수록, 그 관계의 균열은 곧바로 고립으로 이어질 위험을 내포했다. 고립의 원인이 된 가족 구조는 그대로 둔 체, 같은 기능을 연인에게 이전하는 셈이다.

5.2 능력주의와 지역 구조가 만든 세대 내 격차

3장은 2장에서 다룬 청년 여성의 고립 경험을 바탕으로 이들의 사회문화적 조건을 재배치하고자 했다. 그 과정에서 두드러진 의제는 바로 ‘세대 내 격차’이다. 청년은 단일 집단이 아니며, 같은 지역·비슷한 가정 배경의 청년 여성이라도 그 안에는 뚜렷한 간극이 존재했다. 서울에서 대학 교육을 받고 대외활동·교환학생 등 자기개발 기회를 활용한 여성, 그리고 평생을 같은 지역에서 살아온 여성은 서로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느꼈다. 서울 경험이 있는 여성에게 고립은 “희망했던 세계의 벽에 부딪힌 결과”로 나타났고, 지역에 남은 여성에게 고립은 “애인과의 이별, 병, 실업 등 삶의 기본 조건이 흔들릴 때” 찾아왔다.

이 경계는 능력주의라는 사선 위에 놓여 있다. 그러나 참여자들의 이야기 속에서

능력은 개인의 재능이나 노력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딸은 서울에 보내지 않는 부모의 결정, 여성에게 열려 있지 않은 지역의 기회 구조, 교육·문화·연대 자원이 수도권에 집중된 구조가 능력주의 경쟁의 출발점을 다르게 만든다. 그럼에도 이들을 향한 사회적 해석은 “능력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에 같하고, 젠더와 지역의 조건은 흐릿해진다.

이때 비수도권 청년 여성의 고립은 단순한 ‘낙오’가 아니라, 애초에 진입이 어려운 경쟁에서 빠르게 배제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능력주의적 페미니즘이 관계보다 노동 영역의 성공을 강조할수록, 노동시장에의 접근성이 낮은 비수도권 청년 여성은 두 번 배제된다. 하나는 지역 구조에 의해, 또 하나는 ‘성공’의 기준에서다.

5.3 미래 속에 부재한 것들

4장은 비수도권 청년 여성들이 미래를 어떻게 상상하는지에 주목했다. 참여자들의 발화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었다.

지금의 지역에서는 기대할 것이 없다는 감각이 해외에 대한 막연한 갈망으로 나타났다. “언어 장벽”과 “개인 능력”에 대한 부담 때문에 실제 실행 계획은 아니지만, “여기가 아닌 어딘가”에 대한 상상으로 기능했다. 한편으로는, 직업이나 소득보다, 함께 살 사람·결혼·동거 등 관계적 안정이 미래의 핵심 축으로 등장했다. 결혼은 고립을 우회하고, 지역을 떠날 수 있는 몇 안 되는 경로로 자리 잡는다. 마지막으로, 서울·해외 경험이 있거나, 고립을 정체성으로 수용한 일부 참여자는 흥미와 가치, 대안적 공동체를 기반으로 미래를 그렸다. 이들에게 고립은 문제이자 동시에 새로운 연결을 가능하게 한 계기였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주거와 일자리 서사가 거의 등장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수도권 청년의 고립이 주거·일자리 부담과 밀접하게 연결된다면, 비수도권 여성 청년의 미래 발화에서는 ‘좋은 일자리’에 대한 상상 자체가 희미했다. 이는 비수도권 노동시장의 빈약함 때문에 불안정 노동이 기본값이 되었고, 안정된 일자리를 기대하는 것이 오히려 비현실적인 상상처럼 느껴지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결혼·애인은 과도하게 부각된다. 결혼은 평범한 삶의 이정표를 넘어, 삶을 전환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도구처럼 작동한다. 친구·취미·결혼이 같은 문맥에서 언급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문화·여가 자원이 부족한 지역에서 취미는 곧 관계를 만드는 통로이며, 친구 관계가 결혼·육아로 멀어질수록 남는 것은 결혼이라는 단일한 경로뿐이다.

5.4 돌봄의 재배치와 동료애적 연대

2~4장의 논의를 관통하는 핵심은, 비수도권 청년 여성의 고립이 돌봄의 구조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가족이 유일한 안전망인 사회에서 가족이 작동하지 않을 때 청년은 쉽게 고립의 위험에 놓인다. 많은 참여자들이 가족을 떠나고자 했지만, 가족 밖의 안전망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아 떠나지도 못하고 머물지도 못하는 상태에 놓여 있었다. 고립은 이처럼 돌봄이 한 개인·한 가족 단위에 과도하게 집중된 사회적 구조의 결과였다.

그럼에도 2~4장에서 포착된 몇몇 서사는 가족과 연애 관계 밖에서도 돌봄이 형성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예컨대 Y07은 결혼과 출산으로 친구 관계가 빠르게 소멸되는 경험을 한 뒤, 관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지역에서 새로운 모임을 찾기 시작했다. 그는 “취미를 만들어야겠다”는 마음으로 여러 활동에 참여했고, 그 과정에서 이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관계의 가능성에 열려 있었다. 이는 고립이 관계의 단절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연결을 만들기 위한 조심스러운 탐색을

촉발할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Y09의 경험도 마찬가지다. 지역 청년 네트워크에서는 남성 중심 연대에 반복적으로 밀려난 그는, 서울의 여성 감독 네트워크에서 처음으로 “심리적 지지와 전문적 연대”를 경험했다고 말했다. 이 네트워크는 경쟁이나 평가가 중심이 아니라, 서로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지지하는 관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었다. 그는 “여자가 성공하려면 좋은 여자들이 옆에 있어야 한다”고 말하며, 이러한 관계가 자신의 커리어뿐 아니라 정서적 안정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동료애적 연대가 기존 가족과 연애 관계가 제공하지 못한 지지 구조를 실질적으로 작동시킬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사례들은 간비가 제안한 동료애적 돌봄과 맞닿아 있다. 동료애는 혈연이나 법적 관계에 기반하지 않고, 사유화된 애착이 아니라 연대에 기반한 확장된 친밀성을 가능하게 한다. 기존 가족제도가 제공하지 못하는 돌봄을 동료·지인·또래 여성 간의 느슨한 네트워크가 채울 수 있다는 가능성이다.

6장.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본 연구는 비수도권 청년 여성의 고립을 참여자 서사를 중심으로 분석하면서, 고립이 개인의 선택이나 성향으로 설명되기 어려운 구조적·정서적 요인의 결합이라는 점을 드러내고자 했다. 그러나 연구 설계와 자료의 범위를 고려할 때 몇 가지 분명한 한계가 존재한다.

첫째, 표본 규모가 충분하지 않아 비수도권 내부의 지역적 차이를 풍부하게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이 있다. 참여자들이 서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지역 노동시장·정책 환경·문화적 조건 등 구조적 맥락을 비교·분석하는 데에는 제약이 있었다.

둘째, 참여자 중 다수가 대학 재학 혹은 졸업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연구자의 의도라기보다 눈덩이 표집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지만, 지역 대학 진학 경험이 없는 비수도권 청년 여성의 고립 경험을 충분히 포착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일정한 한계를 갖는다. 비수도권 청년 내부의 계층·학력·직업 경로 차이를 고려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참여자의 경험을 중심으로 서사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개별 지역사회가 가진 역사, 정책 환경, 자원 체계와의 구조적 연계를 충분히 심화하지는 못했다. 결과적으로 참여자 개인의 고립 경험과 지역적 제도 환경이 어떻게 맞물려 작동하는지에 대한 분석은 향후 과제로 남아 있다.

향후 연구와 실천은 단순히 경험을 더 많이 수집하는 데서 나아가, 비수도권 청년 여성의 고립을 완화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한국 사회가 어떤 구조적 전환을 만들어야 하는지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우선, 수도권 중심주의가 고립과 맞물린 조건임을 본 연구는 반복적으로 보여주었다. 현재의 수도권 편중 구조에서는 교육·일자리·문화·관계 자원이 서울에 집중되고, 비수도권은 청년이 삶을 설계할 선택지 자체를 상실한다. 이 구조에서는 “떠남”은 당연한 경로가 되고, “남음”은 경쟁주의에서 ‘밀려남’으로 비춰짐과 동시에 진로와 미래를 상상할 기대 자원의 손실로 이어진다. 한편, 떠난 이들은 수도권의 경쟁주의 문화와 높은 물가에 허덕이며 안정성을 추구하나 아주 일부를 제외하곤 다다르지 못한다. 수도권에서의 과로는 이들을 번아웃으로 이끌어 다시 비수도권으로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수도권 중심주의에서 비롯된 떠남과 남음의 경로는 비수도권 청년 여성 내부의 격차를 두드러지게 한다. 남은 이들과 떠난 이들은 서로 만나기 어려운 존재가 된다. 지역의 청년들이 미래 전망을 상상할 수 없다고 말하는 이유 역시, 지역 내 자원 부족은 경제적 제약 외에도 새로운 미래를 구성할 언어와 상대가 부재한 구조적 조건이기 때문이다.

고립을 단순히 일자리 부족이나 개인의 어려움으로 설명하는 답습에서 벗어나야 한다. 앞서 언급했듯 고립은 미래를 향한 언어의 부족에서 기인한다. 참여자들은 가족이 중요한 문화적 제도적 환경에서 살아가지만 실제로 가족 내부에서 갈등을 겪거나 성별 규범과 돌봄 전가로 인해 실질적인 지원을 받지 못한다. 따라서, 가족이라는 자원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이때 가장 중요한 매개는 ‘돌봄’이어야 한다. 앞서 지역에서 정착하게 몇몇의 사례는 개인이 취약함을 드러내도 괜찮은, 안전한 관계망에서 기인한다. 고립을 개별의 문제가 아닌, 사회 구조 혹은 사회 돌봄의 실패로 본다면 다음과 같은 질문이 가능하다.

돌봄을 개인과 가족에만 맡기는 구조에서 벗어나, 지역사회가 어떤 방식으로 동료

애적 관계·확장된 친밀성을 지원할 수 있는가?

기존의 “정상적 가족” 모델만을 기준으로 한 관계 상상력을 벗어나기 위해, 사회는 어떤 다양한 함께 살기·돌봄 공동체의 모델을 실험할 수 있는가?

고립은 사회적 돌봄이 실패한 현대의 다양한 현상 중 하나다. 따라서, 돌봄의 책임을 사회로 확장하고, 취약성을 공유할 수 있는 관계 기반을 촘촘히 세울 때, 비수도권 청년 여성의 고립은 개인의 경험을 넘어 사회적 전환의 가능성을 갖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경인지방통계청. (2025). 「2024 수도권 청년의 삶」 .
- 근로복지공단. (2025).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지역별 판정현황” . 출처: <https://www.data.go.kr/data/15101150/fileData.do>
- 서울경제. (2023.03.24.). “부산·광주서 다치면 서울 보다 산재 인정 어렵다” .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9N5GQQLE2> .
- 알바 갓비. (2024). 『친밀한 착취』 . 니케북스.
- 이소진. (2023), 『증발하고 싶은 여자들』 . 오월의봄
- 이수비·전예빈. (2023). 「청년의 고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수도권과 비수도권 비교」 . Crisionomy . 제19권 제6호, 125–141쪽.
- 이승윤. (2024). 『보이지 않는 노동자들: 경계 없는 노동, 흔들리는 삶』 . 문학동네.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 연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 의

1. 이 보고서는 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에서 시행한 노동 연구 지원사업으로 수행된 최종 연구보고서입니다.
2. 이 최종보고서의 내용을 대외적으로 발표하거나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재단에서 시행한 노동 연구 지원사업의 결과임을 밝혀야 합니다.
3. 본 연구의 주장이나 제언은 연구진의 견해이며, 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